News p/2
문재인의 '뉴딜정책'
metro
Entertainment p/17
신보라 두번째 싱글 발표
뚱보라서
못갔어요
[세습재벌 문제 없나] ◆ 병역;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
신검 앞두고 79kg→104kg… 기준 1kg 넘어 면제
공정위 vs 전직 공정위
이마트 막강 사외이사로 '방패'
특수강도 풀어준
경찰은 직무유기죄
온라인 사이트(www metroseoul co kr)와 모바일

한국 방문한 카터 미 국방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왼쪽)이 9일 오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해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의 영접을 받고 있다. 카터 장관은 미사일 방어에 있어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다. 이번 방한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문제가 다시 재점화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의 '뉴딜정책'

"특권경제 끝내겠다"… 4월국회 문재인의 행보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특권경제를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재벌과 대기업 등 특권층을 위한 왜곡된 경제현실을 뜯어고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가 편파적인 성관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내 대다수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한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현안을 두고 문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문 대표는 9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대기업의 탈법적 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소비자와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을 추진했다"며 "부의 분배라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약속으로 뉴딜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을 되찾은 국민들이 다시 경제의 주인이 되면서 미국경제는 대공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경제기조의 대전환이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국민들은 불공정한 경제를 직감이 배웠다"며 "새경제로의 대전환"을 요구했다. 문 대표가 말하는 새경제는 '공정한 시장'과 '정직한 정부'로 요약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표는 시장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새로운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커나가도록 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독점의 폐해, 그리고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 추구와 불법행위가 시장경제의 장점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지배력을 휘둘러서 이익을 독차지하려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국가가 위기에 놓였는데 정부는 여전히 불공정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며 "지난 연말정산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한 핵심은 정직하지 못한 정부"였다. 담뱃값을 2000원이나 인상하면 서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 자명한 일인데도 증세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말했다. 또 연말정산 분석에서도 정부가 다시 정직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하지 못한 시장, 공정하지 못한 분배, 공정하지 못한 세금의 배후에 공정하지 못한 정부가 있다"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법인세 인상을 비롯해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과 관련해서 이학수법도 발의한 상태다. 문 대표는 지난달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이 주최한 이학수법 공청회에 보낸 축사에서 이학수법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재벌대기업들의 부당한 재산 증식과 불법적인 세습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며 "범죄로 인한 수익은 국가가 나서서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北 'KN-06' 추정 미사일 2발 발사

북한이 지난 7일 평안남도 평원군 화진리 일대에서 KN-06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합동참보본부 관계자는 9일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인 KN-06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다"며 "일상적인 수준의 훈련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보유한 대공 미사일 가운데 최신형으로 알려진 KN-06의 사거리는 60~100km로 알려져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발사에서는 약 60~70km 거리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험발사 성격이기 때문에 도발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카터 장관 방한 계기에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지난 1일부터 동해의 특정 수역에 대해 기한없는 '국가경보기간'(항행금지기간)을 설정했다. 따라서 4월엔 당동안 한미연합 군사훈련 미 국방장관의 방한, 개성공단 임금협의, 태양절(4.15 김일성 생일) 등을 앞두고 북한이 단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성 도발을 산발적으로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일 1발, 3일 4발로 총 5발의 KN-02계열의 단거리 미사일 5발을 평안북도 동림리 일대에서 서해 대동강 하구로 발사한 바 있다.

/정윤아기자 yoona@

김정은, 오른 손목 부상채로 현지지도

지난해 발목 부상으로 40여일 간 잠행했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이번엔 오른 손목에 부상을 입은 모습이 포착됐다.

북한 조선중앙TV가 8일 방영한 김 제1비서의 평양 약전(藥電) 기계공장 현지지도 영상에서 김 제1비서의 오른 손목에 거즈로 보이는 물체가 하얀색 반창고로 고정돼 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당일 오전 노동신문에 공개된 현지지도 사진에선 이 같은 모습이 노출되지 않았으나 TV로 방영된 사진과 영상에선 김 제1비서가 직원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장면에서 손목이 노출되며 이 같은 모습이 공개됐다.

북한 매체가 지난 4일 보도한 김 제1비서의 해군 제164군부대 시찰 당시엔 이 같은 부상이 포착되지 않아 최근 4~5일 사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김 제1비서는 환하게 웃으며 현지지도에 임하는 등 오른 손목 외에 다른 부위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김 제1비서의 부상 정도는 9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참석 여부에 따라 추가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제1비서는 지난해 9월 교육 관련 안건만 다뤘던 13기 2차 회의를 제외하곤 집권 후 열린 4차례의 최고인민회의에 모두 등장한 바 있다. /정윤아기자

박상옥 청문회서 드러난 '엉뚱한 진실'

지난 7일 국회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상옥 후보자가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청문회의 핵심이었다. 청문회는 정치 공방으로 끝났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수사 검사였던 안상수 창원시장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사건을 밝힌 주역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09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사망한 박종철을 화장하고자 했던 경찰을 막은 것은 최환 당시 서울지검 공안 2부장이었다. 1987년 1월 14일 오전 박종철 군은 사망했고 경찰은 사체 화장 승인을 최 전부장에 요청했다. 그러나 2시간에 걸친 설득에도 최 전 부장은 이를 거절했고 경찰 치안본부장의 부검 반대에도 고문치사 가능성이 있어 부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 치안본부장은 경찰병원에서 부검을 하자고 요구했지만 한양대병원에서 부검을 하자고 강력히 주장한 사람도 최 전 부장이었다. 다만 최 전 부장과 치안본부장 간의 합의 아래 안 시장이 부검을 지휘하도록 했다. 그리고

안상수 창원시장이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증인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온 결과가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사였다.

이후 안 시장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 스타 검사로 떠올랐다. 사람들은 안 시장이 없었다면 6월 항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 박종철의 사망이 역사에 묻힐 뻔한 걸 부검을 강행해 밝혀낸 것이 안 시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안 시장은 1996년 '이제야 마침표를 찍는다. 박종철사건 수사검사의 일기'를 출간했고, 안 시장은 외압에 맞선 소신 있는 검사라는 스타성을 등에 업고 15대부터 18대까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009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최 전 부장이며 안 시장은 조연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전에는 안 시장이 저서를 통해 당시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으면서도 과거사위원회가 사건을 조사할 때 정작 협조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했다.

/마정란기자 jk@

신세계의 메트로 강탈…"경찰이 하수인 노릇"

장하나 의원 성명… "특수강도·업무방해 철저히 수사해야"

"경찰 측은 쌍방이 합의해서 정리됐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실활을 보니 그렇지 않았다."

9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는 전날 신세계그룹(정용진 부회장)의 메트로신문 강탈사건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낸 이유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장 의원은 전날 저녁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님 무가지 신문이라고 훔치면 안 되는 겁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장 의원은 이 성명에서 "신세계그룹이 또 다시 불법을 저질렀다"며 "직원 사찰, 노동조합 탄압으로 회장을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과 관리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거리낌 없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아예 장르까지 바꿔서 강도짓"이라며 "알려진 사건의 전말은 신세계그룹 홍보팀 직원 두 명이 지하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앞에서 무가지 신문인 메트로신문을 나눠주는 배포도우미의 신문을 강제로 빼앗고 배포대에 놓여있던 신문 40여 부를 탈취하여 도주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오늘자 메트로신문의 1면 기사가 신세계 이마트가 도입한 새로운 인사제도가 인건비 감축을 위해서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이 과정에서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경찰의 행동"이라며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남대문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신세계 홍보팀 직원이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단순폭행으로 경미한 쌍방 피해사건'이라며 관련자들을 파출소나 경찰서로 데려가지도 않고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 처리해 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판례는 무가지 신문이라고 해도 광고 수익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신문을 발행한 점, 구독자들에게 1부씩 골고루 그리고 적절히 배포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었던 점, 무료 배포는 구독자가 이를 정보 취득 목적으로 최소한의 수량을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그 무가지 신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으로 대량을 가지고 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함을 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더구나 강제력을 발휘하여 배포하고 있는 신문을 빼앗고 그 가운데 2인 이상이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면 특수강도죄도 성립할 수 있는 중범죄이며 무가지 신문의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메트로신문에게는 업무방해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장 의원은 "아무리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공권력이 관대하다지만 어떻게 이런 현행범까지 제 손으로 풀어줄 수가 있겠는가"라며 "재벌 대기업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다시 한 번 덮어쓰기 싫다면 경찰은 신세계그룹이 저지른 특수강도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8일자 메트로신문 1면

정 부회장을 향해서도 "진실은 주머니 속의 송곳 같아서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뚫고 나온다"며 "당신이 이렇게 직원들을 동원하여 무가지 신문을 훔쳐오라고 하여도 그 진실이 가려지지는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차라리 강도짓을 하라는 지시를 내릴 시간에 새로운 인사제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들으라"며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신세계그룹의 노동자들이 행복할 수 있는 진짜 큰 대자, 대기업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장 의원실 관계자는 "신세계 문제는 2013년 1월 노조 사찰 내부문건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며 "당시 문건에는 이번 메트로신문이 보도한 인사제도는 물론이고 고용노동부 관리들 명절 떡값 리스트까지 광범위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성완종 전 회장 북한산서 자살 9일 북한산 형제봉 인근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시신이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전날 자신은 MB맨이 아니라며 검찰의 수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뉴시스

'윤 일병 유족들의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잤어요."

지난해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의 항소심이 열린 9일, 재판부의 선고 이후 만난 윤 일병 어머니 안모씨(60)는 이같이 말했다. 안씨는 "어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거 보니까 병영혁신문화 그거 보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옴부즈만제도를 그대로 국방부에 두겠다는 거 보니까"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 병장에게는 징역 35년,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유족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하 병장 등도 모두 상해치사죄였다.

안씨는 "이 재판이 그래도 좀 투명하게 잘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재판으로 인해서 (아들인 윤 일병이) 기도 폐쇄로 죽었다는 게 사실이 밝혀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일병이 죽은) 28사단 헌병대에서 했던 수사들이 은폐되고 축소됐던 것에 대해서 끝까지 밝히고 싶다"고 했다.

윤 일병의 유족과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에서 직무유기 등 혐의로 윤 일병 사망사건의 수사를 맡은 28사단 헌병수사관 등 5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대상은 28사단 헌병대장, 28사단 헌병수사관, 28사단 본부중대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28사단 검찰관 등 5인이다. 윤 일병 유족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병장의 형량이 징역 45년에서 35년으로 줄어든 것은 윤 일병 유족의 위로금을 공탁한 점이 고려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 병장 등도 유족들의 선처 탄원으로 감형됐다.

안씨는 "사실 탄원서를 내는 것에 대해 유족들은 마지막까지 분분했다"며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들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대화를 했다"며 "주범을 제외한 그들도 자의보다 타의에 의해 폭행을 했는데, 만약 우리 승주가 그 일을 견뎌내고 계급이 올라가서 그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yoona1@

한일 고대사 규명, 정부가 나선다

이 총리 긴급회견 통해 "교육부에 지시하겠다"

일본이 현대사에 이어 고대사 왜곡까지 시도하자 정부가 한일 고대사 규명에 직접 나설 방침이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한일 고대사)에 대해 총리로서 냉정하게 팩트에 입각해서 말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연구활동을 강화해달라, 사실 규명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교육부에 지시할 계획"이라며 "한일 고대사에 대한 정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문화청 홈페이지의 한국 문화재 일부 설명에 '임나'라는 표기를 쓰고 있고, 최근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역사교과서들도 임나일본부 내용을 다룬 것으로 드러났다.

임나일본부설이란 일본의 야마토왜가 4세기 후반에 한반도 남부지역에 진출하여 백제·신라·가야를 지배하고, 특히 가야에는 일본부라는 기관을 두어 6세기 중엽까지 직접 지배했다는 설이다. 이는 일제가 그들의 한국 침략과 지배를 역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조작해 낸 식민사관이다. 현재는 일본에서도 근거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일 메시지 전달하는 이완구 국무총리 /연합뉴스

이 총리는 "고대에 한반도 남쪽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해 신라와 백제가 마치 일본의 식민상태에 있었다는 (일본 교과서 내용의) 보도를 봤다"며 "충남의 공주와 부여는 백제의 왕도였고, 총리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 한사람으로서 또 충남지사를 지낸 사람으로서 한일 고대사 관계를 명확히 해야 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또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는 앞으로의 한일 관계나 미래 세대를 위해 냉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진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역사 왜곡을 해선 안된다. 엄연한 진실을 덮을 수 없고 언젠가는 준엄한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사와 고대사를 가리지 않고 거듭되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함)라는 말을 쓰고 싶다"며 "아시아의 평화와 새로운 평화질서에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역사 왜곡을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서이기자 seolee2175@

세월호 기억의 숲 홍보이미지

Sewol Ho Forest of Memories by Hepburn

Sewol Ho Forest of Memories will be established near Jin-do Pang Mok Port to commemorate the victims and console their families. The construction business was suggested by Sean Hepburn Ferrer, son of the top Actress of all times, Audrey Hepburn.

Social enterprise Tree Planet has stated on the 8th that, with Sean's cooperation, the Sewol Ho Forest of Memories will be completed by the first half this year. Tree planet official said that Sean wants to do something meaningful for the victims of Sewol Ho inspired by his mother Audrey Hepburn sent a proposal letter.

Sean is the first son between Audrey Hepburn and Mel Ferrer. He has worked in film marketing field and ever since his mother past away in 1993, he started to focus on running a foundation which his mother was involved in. Sean has lived in Korea for a year in 1979 to take part in the film making of a movie about the battle of Incheon "Oh! Incheon."

The forest will be established on Baek Dong Hibiscus hill in Jeon Nam Jin Do County. Tree Planet and Sean will hold a press conference at the Seoul Press Center on the 9th of this month at 10a.m and present the forest establishment plans. Then they will have a ground-breaking ceremony on the 10th in Jin-Do. Donations for the forest establishment can be made at sewolforest.org.

/한국다이애미 번역
Chris Kim(김홍관) 감사

헵번의 '세월호 기억의 숲'

세월호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세월호 기억의 숲'이 진도 팽목항 인근에 조성된다. 조성사업의 제안자는 세기의 여배우 오드리 헵번의 아들인 션 헵번 페러이다.

사회적기업인 트리플래닛은 8일 션과 함께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세월호 기억의 숲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리플래닛 관계자는 "션이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희생당한 아이들을 위해 의미있는 일을 해주고 싶다"며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숲을 만드는 것을 제안하는 메일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왔다"고 말했다.

션은 오드리 헵번이 배우 멜 페러와 결혼해 낳은 첫 번째 아들이다. 그는 영화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1993년 이후부터는 어머니와 관련된 재단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션은 한국에 1979년부터 1년 동안 머문 인연이 있다.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한 영화 '오! 인천'의 제작을 위해서였다.

숲은 팽목항에서 4.16km 떨어진 전남 진도군 백동 무궁화동산에 조성될 계획이다. 트리플래닛과 션은 9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숲 조성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국민의 참여를 호소했다. 10일에는 진도에서 착공식을 연다. 숲 조성을 위한 기금 모금은 홈페이지(sewolforest.org)를 통해 진행한다.

서민층 아우르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하라

김하성의
세상보기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안심전환대출 '광풍'이 은행창구 금융시장을 휩쓸고 갔다.

출시된지 나흘만에 20조원이 바닥날 정도였고 9일간 35만명에게 34조원이 공급됐다.

이 상품은 현재 변동금리를 적용받거나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을 연 2.6%대의 낮은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상품이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연 3.5%대인 것을 고려하면 매력적인 대출조건이라는 점에서 '광풍'이란 표현을 쓸 정도로 대출 신청자가 몰렸던것도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아이디어를 낸 금융위원회는 매년 1조원의 가계부채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 경제의 뇌관인 11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연간 이자규모만도 최소 40조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금리 리스크를 낮춰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시도는 긍적적인 평가를 받을 만 하다.

그러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일면서 후폭풍 또한 거세지고 있다.

무엇보다 형평성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중간소득층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보다 원금 상환 여력이 있는 중산층에만 혜택이 집중됐다. 반면 보험·저축은행·카드 신협·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은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받지 못한 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다.

한달 생활비도 빠듯한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다.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서민층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고 질타하는 한편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것을 촉구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도 최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먼저 내놓지 못하고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람들 대책을 먼저 내놨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운 정책은 못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정부도 서둘러 여론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원스톱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등 후속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재원마련 등 묘안을 찾느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형평성 시비로 원성을 사고 있는 만큼 2금융권 대상자들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

구조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일자리를 늘리고 임금인상을 통한 소득을 증대시켜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충고 역시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서민층을 아우르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부국장겸 온라인뉴스부장

백인경찰, 흑인 등뒤 8발 총격… 美사회 '경악'

미국에서 '제2의 퍼거슨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이번에는 사건을 고스란히 담은 동영상이 존재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8일(현지시간)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백인 경관 마이클 토머스 슬레이저(33)가 비무장 상태였던 흑인 월터 라머 스콧(50)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전날 체포됐다. 슬레이저는 지난 4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노스찰스턴에서 교통위반 단속을 하던 중 승용차를 타고 가던 스콧을 멈추게 하고 전기충격기로 폭행한 뒤 뒤돌아 도망가는 스콧에게 총 8발의 총격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슬레이저 경관은 스콧과 몸싸움을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보고했었다. 하지만 이후 지나가던 시민 페이딘 산타나가 유족과 언론에 영상을 제공해 스콧의 보고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미국사회는 이 영상이 공개돼 경악에 빠진 상태다.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동영상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고 말했다.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직접 이 사건은 논의하진 않았지만 이 영상을 이미 봤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영상을 보면 스콧과 몸싸움을 했다는 슬레이저 경관의 진술과 달리 슬레이저는 등을 돌려 달아나는 스콧에게 정조준 자세를 취하여 무려 8발의 권총을 발사하는 것으로 나온다. 영상이 공개되자 바로 수사 당국은 슬레이저 경관을 곧바로 체포했으며 슬레이저의 변호사는 변호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연방수사국(FBI)은 법무부와 함께 이번 사건에서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술렁이고 있다. 경찰에 의한 흑인 증오 범죄가 끊이지 않아서다. 지난해 8월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흑인 청년이 백인 경관의 총격으로 숨졌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는 뉴욕에서 흑인 남성이 경찰의 목조르기로 숨졌다. 이 때 미 전역에서 일어난 격렬한 항의시위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이번 사건은 퍼거슨 사건 때와는 달리 수사에 의문점은 남지 않을 전망이다. 결정적인 영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퍼거슨 사건 때에는 경관 윌슨과 흑인 청년 브라운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진과정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윌슨과 당시 현장 목격자들 간 진술이 엇갈렸고, 윌슨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논란 끝에 윌슨은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수사 석달만에 불기소 처분으로 풀려났지만 당시 상황에 대한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다.

노스찰스턴 흑인 총격피살 과정. /연합뉴스

/김서이기자 ···

광주 '태전·고산지구' 조성 본격화

정남~여주 간 본선전철 개통 땐 판교생활권
현대건설 등 5개사 1만2000여가구 공급예정

경기도 광주시 최대 규모의 민간택지지구 태전·고산지구 조성이 본격화된다. 풍부한 교통호재로 사실상 분당·판교 생활권을 자랑하는 데다 내로라하는 대형건설사들이 분양계획을 잡고 있어 눈길을 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태전·고산지구에 5개 건설사가 1만2000여 가구의 새 아파트를 공급할 예정이다.

태전·고산지구는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과 오포읍 고산리 일원 120만㎡ 규모로 조성되는 민간택지지구다. 광주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이미 입주해 들어간 5600가구를 포함해 총 1만7000여 가구의 대단지 주거단지가 건설된다.

지구 내 기존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1곳을 포함해 총 11개의 초·중·고교가 들어선다. 또 중심상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 공원시설 등 각종 생활인프라가 체계적으로 배치돼 신도시와 같은 생활을 누릴 수 있다.

교통여건 개선으로 분당·판교와의 접근성은 대폭 개선된다. 현재 차를 타고 분당·판교까지 20분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2017년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가 전면 개통되면 10분대로 접근이 가능하다. 신분당선 판교역과 여주역을 잇는 복선전철 광주역도 2016년 개통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태전 투시도.

교통호재 속 광주지역 분양시장 분위기도 좋다. 지난해 11월 공급된 'e편한세상 오포3차'는 2.28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이보다 앞서 나온 'e편한세상 광주역'은 단 달여 만에 완판을 기록하고 현재는 2500만원가량의 웃돈이 붙어 있다.

이달부터 신규 분양물량도 쏟아진다. 현대건설은 태전 5·6지구에서 '힐스테이트 태전'을 4월 분양한다. 전용면적(이하 동일) 59~84㎡ 총 3146가구다. 단지 옆으로 초·고교가 신설될 예정이고, 근린공원 건설도 계획돼 있다. 상업시설 예정부지와도 가깝다.

현대산업개발은 태전4지구에서 '태전 아이파크' 640가구를 같은 달 공급한다. 59~84㎡로 구성됐다. 부지 서측으로 문형산이 있어 쾌적성이 높고 일부 세대에서 산 조망도 가능하다. 단지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대림산업 계열사인 삼호도 태전3지구에서 '광주 태전 e편한세상'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직리천과 광남생활체육공원이 인접했다. 이어 6월에는 GS건설이 태전7지구 13·14블록에서 668가구를, 현대건설이 10·11블록에서 110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고산1지구에서 중소형아파트 23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외 시행사인 엠엠재이파트너스가 고산2지구에서 1500가구를 분양하고자 현재 시공사와 협의 중이며, 고산3지구에도 1700여 가구의 대단지가 지어진다.

/박선옥기자 psc@metroseoul.co.kr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 신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분양 상담을 받고 있다. /롯데건설 제공

'롯데캐슬 골드파크3차' 당해 1순위 마감

롯데건설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원에 미니신도시급으로 조성한 '롯데캐슬 골드파크3차'가 1순위에서 전 주택형 마감됐다.

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8일 '롯데캐슬 골드파크3차' 963가구(특별공급 제외)에 대한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당해지역에서만 2808명이 몰리며 평균 2.9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59㎡ A타입이 기록했다. 159가구 모집에 774건이 접수돼 4.9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59㎡D 2.69대 1 ▲84㎡ 2.62대 1 ▲59㎡C 2.31대 1 ▲59㎡B 2.06대 1 순으로 전 수택형 마감됐다.

최관표 롯데건설 분양소장은 "전가구가 중소형 주택형으로 구성된데다 대규모 복합단지 내 마지막 단지라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있을 계약에서도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는 16일 당첨자 발표 후 21~23일까지 사흘간 계약이 진행된다. 입주는 2018년 9월 예정이다.

/박선옥기자

"신보대경포럼, 지역사회 지식 공유 '구심점' 될 것"

서근우 신보 이사장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8일 오후 지역 공공·유관기관장, 기업 대표와 함께 '제3회 신보대경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역내 리더들과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고 상호 소통을 위해 마련됐으며 매달 명사를 초빙한 특별 강연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석동 전 장관이 강사로 나서 약 180명의 지역 내 리더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한민족의 DNA'라는 주제의 강연을 했다.

김 전 장관은 "인력과 기술, 자본 외에도 수출 주도형 선택과 집중전략 그리고 강인 전략적인 한민족의 DNA가 한국을 세계 10위권의 선진경제 국가로 급부상시킨 원동력"이라며 "열린 세계와의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통한다면 한국은 2046년 세계 6위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리더를 대상으로 거시경제의 안목을 넓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할 계획"이라며 "신보대경포럼이 지역사회 지식 공유의 든든한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란기자 miran@

생보업계 '모바일슈랑스' 시대

삼성화재-KDB생명 등 모바일 서비스 범위 확대

최근 금융권에서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서비스인 핀테크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도 이를 활용한 모바일보험(모바일슈랑스)이 주목받고 있다.

9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이달 내에 업계 최초로 모바일슈랑스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라이프플래닛은 기존에 판매 중이던 종신·정기·어린이·연금저축 등 온라인 상품 대부분을 모바일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모바일슈랑스는 가입 설계부터 청약, 보험료 결제 등 보험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모바일(스마트폰)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밖에 KDB생명도 어린이·정기·연금·암보험 등 5개 내외의 모바일 전용 상품을 준비 중이다.

이미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자보)과 여행자보험에서 모바일슈랑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삼성화재는 현재 교통사고 접수, 보험상품 안내 등 스마트폰과 연동해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현재 자보를 비롯해 운전자보험, 수퍼화재종합보험, 해외여행보험 등으로 모바일 보험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자보의 경우 지난 2010년 '마이애니카M' 모바일 앱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자동차 보험을 직접 설계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앱을 활용하면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할 때 현장에서 즉시 자보에 가입할 수 있다.

최근에는 성장하는 모바일슈랑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인터넷 다이렉트에서 판매 중인 동일한 보험상품을 모바일에서도 가입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삼성화재에 따르면 모바일슈랑스는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모바일 가입고객은 13만9000여명으로 출시 첫해(1000여명)보다 14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기간 모바일을 통해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를 계산해 보는 사람도 연간 3만명에서 133만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는 현재 저금리 기조 지속과 영업 경쟁 과열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며 "보험사별로 IT기술을 활용한 상품 개발과 새로운 영업채널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36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장·본부장	김광혁
편집국장	간세춘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81

2002년 5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아00071호

"금리 동결, 성장률은 3.1% 하향 조정"

이주열 한은 총재 "아직은 효과 지켜볼 때"
2분기부터 회복 기대…정부 재정역할 강조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4월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하며 올 한 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하향 재조정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9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거쳐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4%에서 3.1%로 하향 조정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1.9%에서 0.9%로 낮춰 전망했다.

한은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3.4%,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9%로 발표한 바 있다.

한은의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당분간 금리 인하 효과와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은은 국내경제에 있어 소비와 투자 등 내수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며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낙관했지만 경제 주체들의 심리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GDP갭의 마이너스 상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수요국 통화정책 변화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중동 지역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금리 동결에는 급증하는 가계부채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은이 지난 8일 발표한 '3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한달 만 은행 가계대출이 4조6000억원 증가해 3월 말 기준 570조원의 대출잔액을 기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리 하락으로 4조8000억원 늘었다. 이는 지난해 3월 8000만원 증가했던 액수보다 4조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이주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시점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를 좀 더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그간 3차례 금리를 인하했는데 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금융중개지원대출한도를 확대했다는 점과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유의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 기준금리는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우선해 봐야 한다. 새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장과 물가 리스크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며 "금통위원 중 한 명이 금리 인하 의사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경제성장률이 3.1%로 낮아진 것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0.9%로 하락한 점은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에 기인했다. 하지만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의 재정 역할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미흡하지만 회복세는 이어지고 있다. 기준 금리를 3차례나 연속해서 낮췄고 정부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유가가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어 2분기 이후부터는 잠재수준 정도의 회복은 보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을 낮게 본 이유에 대해 "2013~2014년 2년 연속 큰 규모의 세수부족이 발생했는데 이는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됐다"며 "당해 년도 세수부족은 그 다음해 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준다. 금년도 세수부족이 예상돼 이번 성장률 전망에 반영했으며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주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연합뉴스

간편결제 '광풍'…마지막에 웃을 카드는?

간편결제 시장에 광풍이 불고 있다.

핀테크로 대변되는 전세계적인 IT 금융융합 트렌드와 모바일 기술의 성장, 편리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사, 일반 기업과 핀테크 업체 등에서는 자체 개발 앱카드나 업무 제휴 등을 통해 각사의 강점을 내세운 다양한 결제 시스템을 내놓고 있다.

◆ 핀테크, 총성 없는 전쟁 "업권 구분 없어"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중국 온라인 결제 대행업체인 '알리페이'와 손잡고 오프라인 간편결제 정산 대행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는 수익 다각화를 위한 방안으로 중국 관광객은 국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스마트폰으로 알리페이 월렛을 실행, 일회용바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간편결제를 둘러싼 경쟁은 금융사 내부의 일만은 아니다. 이미 국내에서는 카카오와 네이버, SK플래닛, 삼성전자 등이 각각 간편결제를 선보이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곳은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페이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카카오페이는 현재 모바일과 PC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플래닛은 결제비밀번호 입력만으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럽 페이'를 11번가의 모든 쇼핑채널에 적용했다.

네이버는 오는 6월 국내 주요 은행과 카드사 등 10곳과 손잡고 간편결제 서비스를 선보이며 삼성전자도 국내 카드사 6곳과 손잡고 오는 여름 삼성페이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 실물없는 신용카드, 카드시장 판도 흔들까?

한편 실물 없이 사용 가능한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도 이르면 이달 중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카드사들은 모바일 전용 신용카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현재 전용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다만 금융감독원의 심의와 인프라 확충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 측은 "6월 경에 모바일 신용카드를 출시할 예정"이라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BC카드는 올해 경영 키워드로 간편 결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서준희 비씨카드 사장은 "카드사 본연의 '기본'에 충실하는 한편 편리(편리)하고 안전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해 핀테크 시장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하정기자

생보재단, 전북 농가 500곳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 생보재단)은 9일 전북도청 본관 접견실에서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생보재단은 우선 고창·부안군 등 도내 4개 시·군 500개 농가에 농약안전보관함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보관함은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어 충동적인 농약음독 자살을 예방할 수 있다.

재단은 또 전라북도와 한국자살예방협회와 연계해 개별 가정방문을 통한 사용실태 모니터링 상담 등 정신건강증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전라북도는 농약안전보관함의 올바른 사용 유도를 위해 담당자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보관함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한국자살예방협회를 통해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과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관련 중앙자살예방센터의 2012 자살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농약음독으로 인한 자살은 전체의 15.4%를 보였다. 이는 약물음독(47.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특히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의 농약음독으로 인한 자살은 대도시보다 약 3배가량 높다.

이에 생보재단은 지난 2010년부터 농촌형 자살예방사업으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생보재단이 보급한 농약안전보관함은 전국 16개 시군 58개 마을에 2395개에 달한다. 금일 협약한 전북도까지 보함하면 전국 20개 시군 70개 마을에 2895개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게 된다.

유석쟁 생보재단 전무는 "재단은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농촌의 자살을 예방하기위해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고 관리하고 있다"며 "올해는 이 사업을 확대해 경상북도, 강원도에 총 1900개의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 생보재단)은 9일 전북도청 본관 접견실에서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왼쪽부터) 유석쟁 생보재단 전무, 송하진 전북도지사, 안용민 자살예방협회 회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제공

롯데손보, 1500억원대 유상증자 결정

롯데손해보험은 9일 이사회에서 모집예정가액 기준 1501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통주 6700만주가 발행되는 이번 유상증자는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실권주 발생 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롯데손보의 RBC비율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134.7%에서 180%대로 상승할 전망이다. 감독당국의 RBC비율 권고치는 150%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는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금확충을 위해 결정했다"며 "확보된 자금은 전액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희주기자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DOOSAN

"자본시장 창문 없애 햇별 못 든다"

자본시장 활성화 토론회

황영기 금투협회장 등 '세재 개편' 한목소리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9일 "투자라는 햇볕이 사라진 자본시장에서 과세형평 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 우호적인 세제개편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정책토론회 개회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황 회장은 "우리 경제는 오랜 기간 부동산과 예적금에 지중돼왔다"며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는 낮아지고 저금리 기조인 현재 상황에서 효율적인 투자수단이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에 반해 선진국은 자본시장 투자를 장려해 국민의 부를 증대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해 국가 재정과 복지수요 부담을 낮춰왔다"며 "현 시점은 우리 국민들의 저수익 자산을 자본시장 중심의 고수익 자산으로 변화시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창문세'를 예시로 들며 자본시장에 세심한 조세정책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창문세는 1696년 도입된 영국의 조세제도로 집에 붙어있는 창문의 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정책이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 영국의 창문세는 오히려 서민들이 창문을 없애 햇볕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았다"면서 "우리나라도 조세형평을 명목으로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의 증권거래세 감면을 폐지하면서 차익거래 시장이 침체되고 외국인 위주의 허약한 시장으로 변모했다"며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토론회는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오윤 한양대 교수의 '국민재산 증대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 방향' 등 두 가지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됐다.

황영기 금투협회장이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재산증대 및 국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하는 세제개편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훈 교수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를 논제로 내놨다.

박 교수는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도 가계금융 자산 중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이 50%를 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25% 정도에 불과하다"며 "고령화와 저금리 시대, 소득 3만달러 시대에 따른 국내 개인투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KOSPI200 선물·옵션 거래로 시작된 파생상품 시장은 2002년부터 세계 1, 2위를 다투는 시장으로 성장했다가 정부의 옵션승수 인상 등 강력한 규제조치로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파생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와 양도차익 과세는 이러한 파생상품 시장의 성장세를 더욱 둔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시기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오윤 교수는 한국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WA)에 따른 투자 활성화, 금융산업·상품간 세제형평성 제고를 논제로 다뤘다. 오 교수는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현행 상품은 수동적인 저축에 불과하다"며 "개별 국민들이 적극적인 투자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자산으로부터의 소득에 하나의 방식으로 과세하는 '금융소득'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를 동일화하고, 이 원칙은 장기상품에 대한 과세상 특례에도 적용시켜야 한다"며 "일본은 영국의 ISA 제도를 본따 NISA를 비과세로 운영하고 있듯 우리나라도 IWA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해 동일한 과세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적금상품그룹과 금융투자상품그룹 간, 각 그룹 내 상품 간 상이한 과세제도를 IWA 내에서는 단일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보배기자 bobae@metroseoul.co.kr

키움증권, '호재만발' 中 투자의 길 연다

키움증권이 중국 증시 호재에 따라 최근 선보인 '차이나포커스 ETF Wrap'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중국 투자의 길을 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차이나포커스 ETF Wrap은 업계 최저수준의 수수료(연 0.9%)와 최소 가입금액(500만원)으로 국내에 상장된 중국 관련 대표 ETF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중국 본토 A주 ETF와 홍콩 H주 ETF의 시장 특성(%시장 괴리율, 격차)를 활용해 비중조절과 저평가된 시장에 집중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13년 3월 출시 이후 벤치마크 시장대비 꾸준한 아웃퍼폼(outperform)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3월말 기준 누적 수익률은 53.53%(모델 포트폴리오 기준)에 달한다.

중국 상하이 A주나 홍콩 H주에 대한 직접 투자가 부담스러운 투자자라면 국내에서 판매중인 중국 관련 Wrap Account 투자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최근 중국증시의 고공랠리는 아시아판 다보스 포럼인 보아오 포럼에서 세부 계획안이 공개된 新 실크로드, 올해 출범이 예고된 선강통, 국유기업 금융시장개혁 등 잠재적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견인하는 만큼 그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 지수를 추종하는 당사 차이나포커스 ETF Wrap은 중국시장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투자자들에게 시의 적절한 투자상품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보배기자

유안타증권, '중국본토중소형주펀드' 500억원 판매 돌파

유안타증권의 중국본토중소형주펀드가 출시 9일 만에 판매 500억원을 돌파했다. 유안타증권은 9일 지난달 27일 중국본토 중소형주식에 투자하는 RQFII(위안화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펀드로 선보인 '신한BNPP중국본토중소형주RQFII증권자투자신탁(H)[주식]'이 판매 9영업일 만인 8일, 가입금액 5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유안타증권 제공

'개미들' 증시로… 개인 거래 급증세

개인 거래비중 60% 6년 만에 최고치

주식 시장에 개미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개인의 주식 거래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질 은행 예금금리가 1%대로 떨어지면서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9일 거래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달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3조1963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하루평균 개인 거래대금이 3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2년 2월(3조9107억원)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지난해 5월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인 1조5509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12월(1조8790억원)과 비교해도 3개월여 만에 1조3000억원 이상 늘었다.

이달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9.99%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9년 5월 이후 5년 11개월 만의 최고치다. 이 비중은 지난해 6월 41.10%까지 떨어졌다. 이후 꾸준히 상승하다가 지난 2월과 3월 50%대를 나타낸 데 이어 60% 선까지 올라왔다.

코스닥 열풍 속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자 유가증권시장에서도 개인 거래가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글로벌마켓전략실 연구원은 "시장이 달아오르는 만큼, 개인투자자들의 관심과 실질적인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코스피는 지난 2월 이후 5거래일째 상승해 8일 장중 2060선을 넘기도 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이날 1286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에서도 이달 들어 개인 거래대금이 크게 늘었다. 이달 코스닥 하루평균 개인 거래대금은 3조493억원을 기록했다. /김민지기자

국내 주식형펀드 5일째 자금 순유출

국내 수식형펀드에서 이달 들어서만 4541억원이 빠져나갔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1501억원이 순유출됐다. 주식형펀드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현상은 닷새째 지속됐다.

펀드 전문가들은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자 펀드 투자자들이 수익을 현실화하려고 잇따라 펀드 환매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해외 주식형펀드는 중국 본토 펀드의 호조 덕분에 312억원의 자금이 들어와 사흘째 자금 순유입 상태를 보였다. 또 단기 투자처인 머니마켓펀드(MMF)에는 1조8830억원이 순유입됐다. MMF에는 닷새간 11조2745억원이 들어왔다.

/김민지기자

베일 벗은 갤럭시S6·엣지… S4 뛰어넘나

초반 흥행 돌풍 ||| 무선충전 효율성 보강 숙제

삼성전자의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의 국내 예약판매 물량이 30만대를 넘어선 가운데 10일 글로벌 주요 시장에 동시 출시됐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6와 S6엣지로 아이폰에게 빼앗긴 자존심을 되찾고 실적을 향상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높아진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가 최대관건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서초사옥에서 갤럭시S6 월드투어 서울 행사를 개최했다. 공식 출시를 하루 앞두고 열린 행사에서 신종균 IT모바일(IM)부문 무선사업부 사장은 "여러분의 성원에 따라 판매량이 달라질 것"이라며 "갤럭시S5 등 전작 대비 숫자가 많이 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갤럭시S6는 원점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기능들을 담았다"며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는 현존하는 가장 아름답고 파워풀한 스마트폰"이라고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6 판매량은 바로 직전에 내놓은 갤럭시S5 보다는 확실히 많고 갤럭시 시리즈 중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갤럭시S4 판매량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보강해야 할 부분도 있어 보인다. 소비자들이 갤럭시S6의 가장 아름다운 기능으로 무선충전을 지목했는데 충전기 정중앙에 위치하지 않으면 충전이 안되는 부분은 보강해야 한다.

갤럭시S6가 지원하는 무선충전 기능을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을 충전패드 가운데에 올려놓아야 한다. 충전패드 중앙에서 벗어나거나 사이에 물건이 있으면 충전이 진행되지 않는다.

또 갤럭시S6 무선충전의 충전 효율성도 걸림돌이다. 제품 출시 현장에서 무선충전을 한 결과 유선충전보다 충전 효율성이 낮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유선 충전시 완충까지 80분 가량 소요되지만 무선충전의 경우 두 배 이상 걸린다"고 설명했다.

삼성 갤럭시 S6 월드투어가 9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렸다. 신종균 삼성전자 IM부문 사장이 갤럭시S6 와 갤럭시 S6 엣지를 소개하고 있다.

갤럭시S6의 유선 고속 충전은 LG전자 G플렉스2와 비슷한 수준이다. 고속충전 기능을 채택한 G플렉스2는 50% 충전하는데 40분이 소요된다.

다만 삼성전자가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무선패드를 국내 스타벅스 매장에 설치한 점은 소비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일 두잇서베이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4808명의 응답자 중 23.2%가 무선충전을 가장 아름다운 기능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엣지 모델에 적용된 양면 엣지 디스플레이(21.5%), 1600만 화소급 카메라(20.2%) 순이었다.

/김성훈기자 yun@metroseoul.co.kr

박삼구 회장 "금호산업 인수 자신있다"

매각 예비심사 오늘 마무리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사진)이 금호산업 인수전과 관련해 자신감을 나타냈다. 금호산업 매각을 위한 예비심사는 10일 마무리 된다.

박 회장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세나(?)회 기자간담회에서 금호산업·금호고속 인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금호그룹 채권단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룹 지주회사인 금호산업 지분 57.46%를 확보했고 28일 본입찰을 마감하는 등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 박 회장은 본입찰 최고가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경영권을 탈환할 수 있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면 청구권이 소멸, 인수가 불발되는 것은 물론 금호타이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계열사가 남에게 넘어간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인수전이 박 회장에게 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는다.

현재 채권단은 매수 희망자를 방해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되면 우선매수청구권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과도한 자위매수나 우리한 풋백옵션도 제한했다. 가격이 낮으면 매각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도 해 자금력이 부족한 박 회장에겐 비상이다.

채권단은 최근 박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추진한 외아들 박세창 금호아시아나 부사장의 대표이사 사장 취임을 철회시키기도 했다.

채권단은 박 회장이 추진 중인 그룹 모터 금호고속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도 제동을 건 상태다. 금호산업 최대주주인 채권단과 사전 협의 없이 금호산업을 금호고속 인수전에 참여시킨 것은 일괄병위이니 금호산업을 제외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금호고속 지분 100%를 보유한 사모펀드는 채권단 요구와 관계없이 금호그룹과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논의 중인 것으로 상당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진다. /채소연기자

LG CNS, 21일 최대 규모 IT콘퍼런스 개최

LG CNS는 오는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IT 콘퍼런스 '엔트루월드(Entrue World) 2015'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엔트루월드는 LG CNS가 지난 2001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국내 최대 규모의 IT콘퍼런스로 IT업계 및 학계 관계자 1500여명이 참석해 경영 분야 최신 트렌드와 IT를 통한 경영혁신 방안 등을 공유하는 자리다.

올해 15년째를 맞이하는 엔트루월드는 '스마트한 사물인터넷, 스마트 비즈니스로의 변화를 가속화하다'라는 주제로 스마트 기술들의 융복합으로 구현되는 사물인터넷(IoT) 솔루션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IoT가 비즈니스에 가져올 변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LG CNS 김대훈 사장과 IoT 개념의 창시자인 케빈 애시턴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스마트 비즈니스, 스마트 솔루션, IoT 테크놀로지 등 3개의 트랙으로 나뉘어 LG CNS IT전문가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최신 이론과 동향을 소개한다. /양성기기자

LG전자가 8일(한국시각) 미국 뉴욕에서 '2015년형 TV 신제품 출시회'를 열었다. 넷플릭스 스킷 바디의 제품제휴 총괄과 조주완 LG전자 미국법인장이 '울트라 올레드 TV'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LG전자, 북미 프리미엄 TV 공략

울트라 올레드 TV 공개

LG전자가 드라마 '데어데블(Dare Devil)'을 제작한 넷플릭스와 손을 잡고 북미 프리미엄 TV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LG전자는 8일(한국시각) 미국 뉴욕에서 현지 취재진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형 TV 신제품 출시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LG전자는 울트라 올레드 TV와 올레드 TV, 기존 액정표시장치(LCD) 기반의 울트라HD(UHD·초고해상도) TV보다 색재현율과 명암비를 높여 화질을 강화한 슈퍼 울트라HD TV 등 프리미엄 TV 신제품을 소개했다.

또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가 만든 드라마 '데어데블' 발표회와 함께 열렸다. '데어데블'은 '어벤저스', '아이언맨', '헐크' 등과 함께 미국 만화 엔터테인먼트 회사 마블의 작품으로 드라마로 처음 제작돼 전 세계 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는 울트라HD 해상도로 제작된 '데어데블'의 주인공의 표정 변화와 의상을 담아내기 위해 '울트라 올레드 TV'를 선택했다. 웹OS2.0 탑재 LG 스마트 TV는 넷플릭스 앱에 최적화된 TV로 선정됐다.

조주완 LG전자 미국법인장 전무는 "세계에서 인정받은 압도적인 화질과 쉽고 빠른 웹OS 2.0 기반의 풍부한 콘텐츠로 북미 프리미엄 TV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경기자 eun218@

두산, 물산업 창조경제 지원… 朴 대통령 '기대'

경남 창조혁신센터 출범 동남권 물산업 벨트 형성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이 해수 담수화 분야의 세계 1위기업으로 이끌고 있는 두산이 경남 지역의 물산업(대체 수자원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물산업분야의 창조경제를 주도하며 박근혜 대통령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두산은 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서 물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두산이 대구, 대전, 경북, 충북 등에 이어 전국에서 9번째로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에서 열린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두산그룹 박용만 회장으로부터 해수 담수화 플랜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출범시킨 경남 센터에서는 물산업 육성이 중점 추진된다.

두산중공업은 해수 담수화 분야의 노하우로 기술개발, 인재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대체 수자원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기로 했다.

하천수, 지하수와 같은 일반적 수자원 이외에 해수담수화, 하수처리 등으로 개발되는 대체 수자원 산업은 한국이 세계시장의 7%를 점유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30년 동안 중동 지역에서 27개의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들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물은 640만t 규모로 하루 220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두산중공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업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 융합 기자재 국산화 등 해수담수화 플랜트의 고부가 가치화 추진을 주도한다.

또 영국과 미국에 있는 현지법인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연구개발 센터 등 두산중공업의 거점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남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구의 물산업 클러스터, 부산의 국내 최대 담수화 플랜트 등과 연계하면 동남권에 물산업 벨트가 형성될 전망이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벤처·중소기업이나 시니어 창업을 위한 자금으로 총 1700억원을 조성하는데 두산은 이 가운데 매칭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출범식에서 축사를 통해 "세계 최고의 해수담수화 기술을 기반으로 대체수자원이 신성장동력으로 커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서 세계의 물 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방법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창원은 전국 최초로 창원시와 마산시, 진해시가 자율적 통합을 이뤄낸 화합의 상징과 같은 곳이다. 통합의 아이콘인 창원에서 이제 융합과 융합의 불길이 타올라 동남권 제조업 혁신 3.0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희철기자 roman@metroseoul.co.kr

5도어에 힙합 더하면 "요! 맨"

미니, 서울모터쇼서 공개

미니(MINI)는 12일 서울모터쇼에서 5도어의 힙합 에디션 모델인 'YO'MAN'과 힙합 유지션 박재범과의 콜라보레이션 음원인 'GIVE ME FIVE' 쇼케이스를 진행한다.

오후 2시부터 약 20분간 MINI 전시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쇼케이스는 일산 킨텍스 2전시관에 위치한 MINI 전시관을 방문하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2015 서울모터쇼에서 MINI는 △강력한 엔진 성능을 갖춘 고성능 모델인 뉴 MINI JCW와 △로드스터 콘셉트 모델인 MINI 수퍼레제라 비전 △다카르 랠리에서 4년 연속 우승을 달성한 모델인 MINI 컨트리맨 다카르 등 총 10가지 모델을 전시 중이다. /이정필기자

대한항공, 러 상트페테르부르크 운항 재개

대한항공은 26일부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직항편 운항을 재개한다고 9일 밝혔다.

인천~상트페테르부르크 노선은 화요일·목요일·일요일 주 3회 운항한다. 오후 5시 55분(현지시각)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밤 9시 30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다. 귀국편은 밤 11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출발해 다음 날 오후 1시 40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대한항공은 인천~상트페테르부르크 노선에 전 좌석 주문형 오디오비디오시스템을 갖춘 218석 규모의 A330-200 항공기를 투입해 고객들의 편리하고 즐거운 여행을 도울 계획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대한항공이 2004년 이시아 항공사 최초로 취항한 바 있는 도시로 모스크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다.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비롯해 제정 러시아 시대의 최고 건축물 중 하나인 '성 이삭 대성당', 화려하고 웅장한 러시아 황실의 '여름 궁전' 등이 있다. 에르미타주박물관은 대한항공이 2009년부터 한국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인천~상트페테르부르크 직항편 운항 재개로 러시아와 북유럽을 찾는 여행객과 비즈니스 승객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소리기자 Sound@

현대제철 사외이사진 "안전 문제없다"

근로자 사망사고 직후 안전관리 안건 100% 찬성

지난해 현대제철 사외이사인 정호열 전 공정위원장(왼쪽부터), 전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오정석 서울대 교수, 성낙일 서울시립대 교수, 김승도 한림대 교수

현대제철 사외이사진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도 사업장 안전관리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대제철의 이사회 안건 전부에 100% 찬성표를 던졌다.

9일 현대제철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열린 정기(3차) 이사회에 상정된 '사업장 안전관리 진행현황 보고' 의안은 사외이사 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바로 전달 전남 순천공장에서 일하던 김 모씨가 와인라인 정비 도중 기계장치가 가동돼 협착으로 사망한 직후라 이들이 사외이사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그해 1월을 비롯해 이전부터 현대제철 사업장에서는 안전사고로 인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

그럼에도 안전관리 현황에 문제가 없다는 데 의견일치를 본 사외이사진은 △정호열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전형수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오정석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성낙일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김승도 한림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교수 등 5명이다.

이들은 안전관리 외에도 △대규모 내부거래 승인의 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현황 보고 △임원 공로금 지급 승인의 건 등 정기(4차) 및 임시(7차)까지 이사회에 상정된 31개 주요 안건을 단 한 번의 반대 없이 통과시켰다.

현대제철 윤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승인의 건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승인의 건 등 7차례 회의에 올라온 17개 의안을 100%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현재 정 전 위원장은 현대제철 감사위원으로 있다.

전 전 청장은 신세계 이마트와 GS글로벌의 사외이사다.

오 교수와 김 교수는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박의만 전 국세공무원교육원 원장과 이은택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지난달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임 사외이사로 합류했다.

현대제철 사내이사는 △우유철 현대제철 대표이사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강학서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 △송충식 현대제철 재경본부장 등 4명이다.

안전관리 안건 가결에 대해 사측은 "이사회에서 사고분만 아니라 회사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한 것"이라며 "당시 중요한 의안인 만큼 경영 전반을 공유하는 이사회 내에서도 안전에 관해 얘기를 나눈 것이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건지, 현황 보고인지는 이사회 내부 소관이라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정필기자

"타이어 점검해드려요"

한국타이어, 무상 서비스

한국타이어는 9~10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타이어 무상 점검을 실시한다.

행사장을 방문한 고객 100명에게는 졸음방지 패치와 커피를 제공하고, 졸음방지 예방법을 안내한다.

이번 캠페인은 상춘객이 많이 드나드는 화성휴게소(서해안선, 목포방향), 송산휴게소(제2서해안선 평택방향), 화서휴게소(청원상주선 상주방향), 칠곡휴게소(경부선 서울방향), 진영휴게소(남해선 순천방향), 여산휴게소(호남선 순천방향), 유성휴게소(중부선, 통영방향) 등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서 진행된다.

한국타이어는 안전운전을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타이어 식진, 공기압 점검과 보충, 배터리와 각종 오일류 점검, 자동차 워셔액 보충 등 주요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정필기자

삼성물산 상사, 점유율 곤두박질

신흥국 경기침체·中구조개혁 글로벌 경제전망도 먹구름

김신 대표이사(사장)가 이끄는 삼성물산 상사부문의 시장점유율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삼성물산의 지난해 수출총액이 전년 대비 15.4%나 감소한 탓이다. 그러나 미국 출구전략에 따른 신흥국 경기침체, 중국 구조개혁에 따른 저성장 등 올해 세계경제 전망도 어두워 삼성물산이 반전을 노릴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삼성물산의 수출총액은 34억5000만 달러로 전국 수출총액(5730억 9000만 달러)의 0.6%를 차지했다. 앞서 2013년 수출총액 40억8000만 달러 보다 6억3000만 달러가 줄어든 것이다.

전체 수출·입 총액에서 삼성물산의 시장점유율도 떨어진 상태다. 지난해 전문무역상사(대우인터내셔널, 삼성물산, LG상사, 효성, SK네트웍스, 현대종합상사, GS글로벌) 전체의 총수출액은 220억4000만 달러로 삼성물산은 15.6%의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2013년)에 17.8%를 차지한 데 비해 뒷걸음질 친 것이다.

수입총액 면에선 더욱 시장점유율이 축소됐다. 삼성물산의 지난해 수입총액은 5억3000만 달러다. 전문무역상사 전체의 수입 35억5000만 달러 중 14.9%의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22.2%) 점유율보다 7.3% 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같이 삼성물산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데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삼성물산 상사부문은 기본적으로 화학, 철강, 자원 실물자 트레이딩에 주력하고 있다. 지역적 수요·공급의 불균형, 가격차이 등을 바탕으로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시켜주는 전통적 중개 알선과 판매 영업이 상사의 주된 업무영역이다. 특히 대우인터내셔널 등이 주도했던 자원외교 마저 쉽게 추진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사자방" 비리를 밴드사(방)해 책임 있는 사람들은 재판하고 손해배상도 받아내야 한다"고 자원외교 비리를 엄벌할 것을 주문했다. 또 세계경제의 정체와 불안요인으로 삼성물산이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삼성물산이 지난달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금리인상 등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유로지역은 그리스 관련 정치적 리스크, 고용부진 장기화, 러시아 경제 위기 확산 등의 불안요인도 잠재돼 있다.

일본 경제도 더딘 임금 상승세, 유가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 심리 확대 가능성 등이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 부동산 경기 부진과 과잉설비 조정이 이어지면서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트레이딩 분야 영업개선과 함께 발전·플랜트·선박 인프라 등 프로젝트 오거나이징 사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애널리스트는 "삼성물산이 캐나다 온타리오 사업 등 프로젝트 오거나이징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도 "트레이딩 부분에 대한 수익성도 꾸준히 개선해야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정훈기자 ssh@metroseoul.co.kr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그리드테크 2015'에서 조종 인드러싱 PGCIL M.N. 니약 최장(왼쪽 세 번째) 등 인도 전력부 및 PGCIL 관사들이 효성 부스를 방문해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효성, 인도 전력시장 노크

'그리드테크 2015' 참석 네트워크 확장 가속화

효성이 8~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그리드테크 2015'에 참가해 인도와 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

9일 효성에 따르면 그리드테크 2015 전시회는 인도 내 최대의 전력 관련 전시회다. 격년으로 열리며 매회 110개 업체 이상이 전시에 참가하고, 1만명 이상이 방문한다.

효성은 이 전시회의 주요 전시업체로 참가해 인도 중앙전력청인 PGCIL을 비롯해 아시아 전력 시장의 네트워크 확장과 신규 고객 확보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효성은 이번 전시회로 급격히 수요가 늘고 있는 인도 지방전력청과 IPP(민간 발전 사업자), 민간기업 등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시장확대를 가속화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인도 전력 시장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인도 정부의 제조업 적극 육성 정책에 따라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 연간 7% 이상 확대되고 있다.

2017년까지 전력 수요량이 670GVA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국가적 지원에서도 전력망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효성은 중동·아프리카 지역 등 전력 공급이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도 시장에 최적화된 송전 시스템 구축과 운영 역량을 어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승일기자 roman@

제주항공 새내기 미소천사 "스마일~"

제주항공은 9일 서울 서소문경영소에서 신입승무원 48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

현대엔·LG상사, 투르크 48억 달러 플랜트 수주

현대엔지니어링과 LG상사 컨소시엄이 총 48억 달러 규모의 플랜트 공사 2건을 사실상 수주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LG상사는 투르크메니스탄 국영석유공사가 발주한 9억4000만 달러 규모의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 계약을 13일 국내에서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양사는 또 이 날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가 발주한 38억9000만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 합성석유(GTL) 플랜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합의서에도 서명한다.

두 사업의 계약액은 총 48억 3000만 달러로 한화 5조7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번에 계약을 하는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은 수도 아쉬하바드로부터 서북쪽으로 500㎞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기존 공장에 휘발유·경유의 유황성분을 제거하는 설비를 건설하는 것으로 공사기간은 착공 후 42개월이다. 지난 2012년 수주해 공사중인 투르크멘바시 정유공장의 후속 공사다.

단일 사업규모가 4조원이 넘는 천연가스 합성석유(GTL) 플랜트 사업은 수도 아쉬하바드 인근에 연간 35억㎥의 천연가스를 처리해 경유와 납사를 생산한다.

회사측은 오는 7월경 금융조달 방안이 확정되면 본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기간은 착공후 63개월이다.

이들 공사는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대통령은 순방 당시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회사측은 대통령 순방 때 양해각서를 체결한 투르크메니스탄 제2가스석유화학플랜트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추가 수주가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수주 지원 노력과 현대엔지니어링의 기술력, LG상사의 영업력이 더해져 대규모 공사의 수주가 가능했다"며 "향후 중앙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산에서 이룬 LTE 신화 발판 용산에서 세계 1등기업 이루자"

이상철 LGU+ 부회장 신사옥서 성과공유회

"용산은 용의 모습을 닮아 앞으로는 한강, 뒤로는 남산이 받쳐주는 최고의 기운이 샘솟는 지역입니다. 이 곳에서 용처럼 승천하겠습니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9일 용산 신사옥에서 개최된 1분기 성과공유회에서 남산에서 LTE 세계 제일의 사업자가 되었듯 용산에서 또 한 번 세계 1등 기업으로 거듭나자고 강조하며 임직원을 독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우리는 용산에서 LTE에 이어 또 한번의 기적을 만들라는 큰 비전을 부여 받은 것"이라며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한 큰 소명의식을 가지고 제2도약하자"고 임직원에게 도전의식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은 겸손하고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가져야 하며 시예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곳에서 정상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IPTV를 통해 전국 주요 사업장으로 중계됐으며, 성과공유회에 앞서 어린이 합창단 '예쁜 아이들'이 '꿈은 이루진다'를 LG유플러스로 개사한 노래를 불러 임직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정문경기자 hm0108@

5년 1/4분기 성과공유회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은 9일 용산 신사옥에서 개최된 1분기 성과공유회에서 남산에서 LTE 세계 제일의 사업자가 되었듯 용산에서 또 한 번 세계 1등 뉴라이프 크리에이터로 거듭나자고 강조하며 임직원을 독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LG유플러스 제공

신세계 정용진, 군면제 이유가 '과체중'?

大입학 당시 79kg→3년후 신체검사땐 104kg "운동 마니아가?" 재계 관계자들 어리둥절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1987년 고교졸업 앨범 사진.

정용진(☆ 사진)신세계그룹 부회장은 과체중 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제2국민역은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쟁 때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9일 메트로신문이 입수한 정 부회장의 경복고등학교 졸업 앨범과 대학 입학 당시 학생카드 등을 살펴보면, 정 부회장은 징병신체검사를 받기 2~3년 전까지는 지극히 정상적인 몸매를 지닌 건장한 청년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987년 서울대 입학 당시 작성된 학생카드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키 178cm에 몸무게 79kg으로 정상 체중이었다. 하지만 신체검사를 받은 1990년 몸무게가 갑자기 104kg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당시 군 면제 커트라인인 103kg에서 1kg 넘어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정 부회장은 '운동 마니아'로 알려져 있다. 최근까지도 거의 매일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탓에 정 부회장이 고도비만에 따른 과체중 때문에 군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재계 관계자들은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과거 고의로 살을 찌워 군 면제 혜택을 받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의심돼 2000년부터는 관련 규정을 바꿔 이런 시도를 사실상 원천봉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징병신체검사규칙은 신장·체중과 관련해서는 '체질량 지수(BMI)=체중(kg)/키²(m)'를 계산해 이 수치가 16 미만이거나 35 이상이면 보충역(4급) 판정을 내린다.

정 부회장의 신검 당시 키와 몸무게를 현재 기준에 적용하면 체질량 지수는 32로 현역병 입영 대상이다.

정 부회장의 병역 면제와 관련해 신세계 측은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다.

/정보람기자 boram@metroseoul.co.kr

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모델들이 롯데백화점과 세이브더 칠드런이 연계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유용한 생계 수단인 염소를 보내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위 칼날 대형마트 '정조준'

대형마트3사 부당전가·기만광고 여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칼날이 대형마트를 겨냥하고 있다. 대형마트들이 협력업체에 부담을 떠넘기거나 할인 미끼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를 속인 사실이 있는지 일제 조사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는 지난 8일 이마트와 롯데마트를 방문 표기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트가 판매 기간만 싸게 파는 것처럼 광고하고도 행사 이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오히려 더 낮춰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공정위는 지난 1일부터 홈플러스에 대해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 압력 여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13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특별 조사는 홈플러스가 할인 행사를 하면서 협력업체에게 마진을 줄이라고 강요했다는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2일부터 자체 마진을 깎아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연중 정상 500가지 주요 신선식품을 시세보다 10~30% 싸게 팔고 있다. 일각에서 홈플러스가 자체 마진 뿐 아니라 협력업체에도 부담하게 마진 축소 분담을 요구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공정위가 사실 확인에 나선 것이다.

앞서 본지 취재 결과 이마트 측이 어민을 돕기 위한 판촉 행사라는 홍보와 달리 어민들로부터 참돔을 산지거래가는 커녕 생산 원가에도 못미치는 헐값에 구입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4월1일자) 홈플러스 역시 상시 할인 행사를 본사의 자체 마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의 마진을 줄이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4월2일자)

이번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대형마트 측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마트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프로모션이 연중 상시 할인 신선식품 품목과 혼동되면서 공정위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공정위가 조사 나온 게 아닌 것 같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했다. /김보라기자 boraa@

공정위, 이마트 조사 최대 난관은 사외이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위원장 정재찬)가 대형마트와의 전쟁을 시작한 가운데 이름처럼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일제 조사에 들어갔다. 또 홈플러스에 대해서도 협력업체에 대한 부당 압력 여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대형마트들이 협력업체에 부담을 떠넘기거나 할인 미끼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를 속인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신세계 이마트의 사외이사 방패를 뚫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대기업들의 전직 거물 공직자 사외이사 선임은 정부 기관의 공격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전관예우'는 전직 공직자들의 특권이다.

그런데 신세계그룹(정용진 부회장)의 등기임원 조근호 사외이사는 1981년 사법고시 23회 출신으로 2007년 사법연수원 부원장, 2008년 대전지검장, 2009년 부산고검장, 2011년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법조계 거물이다.

지난달 13일 재선임 된 손인옥 사외이사는 공정위 부위원장 출신이다. 손 이사는 1979년 행정고시 23회 출신으로 2007년 공정위 상임위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공정위 부위원장을 거친 인물이다. 사실상 이번 공정위 조사에 있어 가장 강한 방패인 것이다.

이마트의 사외이사도 만만치 않다. 지난달 13일 재선임 된 전형수 사외이사는 1975년 행정고시 16회 출신으로 1999년까지 국세청에서 근무했다. 2000년 대전지방국세청장, 2004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냈다.

새로 선임된 박재영, 김성준 사외이사도 각각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공정위의 조사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거물급 사외이사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공정거래를 규율하는 조직의 고위직 출신이 불공정이 만연된 대형마트의 사외이사로 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정위의 고위직 출신 인사로 인해 이해충돌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정위 내부에 관련 규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 ☆ nus@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신세계 손인옥 사외이사, 공정위 부위원장 출신
이마트 전형수 사외이사도 서울지방국세청장 지내

배곧신도시 21,541세대 중심위치

서울대가 선택한 배곧신도시

45.7만평 산업단지 서울대 임대수요

저비용관리비 지역 냉 난방 시스템적용

수도권 최저 분양가

전세대 3M층고, LED조명

2 IN 1 테라하우스 특화세대

중도금 60% 무이자

층간소음 소닉스시스템 시공

1% 금리시대 투자의 핫플레이스! 서울대가 선택한 배곧의 가치를 직접 확인하세요!

4월중 분양예정!

입지 엘리트

생활 엘리트

교통 엘리트

수요 엘리트

신개념 저비용 고효율 수익형 아파텔

문의 1644-6662

(주)로얄, 베스트홀딩스(주)

다인건설(주)

백화점, 불황에 콧대 꺾였다

"진도 특산물 울금을 전통 그대로" CJ제일제당은 9일 이마트 성수점에서 100% 국내산 전남 진도 울금을 전통 그대로 우려낸 '콘뿌리 울금차' 출시 기념으로 전남 진도군과 협력해 소비자 시음 행사를 열었다. /CJ제일제당 제공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확정

현대백화점그룹은 서울시내 면세점 후보지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점을 최종 확정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9일 서울시내 면세점 후보지로 동대문 케레스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신촌·목동점 등 네 곳을 검토한 결과 무역센터점이 최종 후보지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코엑스 단지는 지난해 12월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관광특구로 지정됐다며 컨벤션 센터와 특급호텔(3개), 카지노, SM타운, 코엑스몰, 백화점, 도심공항터미널 등 최적의 관광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고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라고 말했다.

세븐일레븐, 업계 최초 PB상품 수출

편의점 세븐일레븐(대표 정승인)은 말레이시아에 자체브랜드(PB) 과자 8종과 도시락용 김 총 1300여 박스를 수출한다고 9일 밝혔다.

수출 품목은 바닐바게트, 통감자스낵, 왕소라봉스낵, 초코콘 등 500원에서 1000원 사이 가격대 상품들로 구성됐다.

이번 수출은 국내 중소기업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세븐일레븐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 결과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티몬, 배송지연 자동보상제·바로 환불제 실시

소셜커머스 티몬(대표 신현성)은 배송지연 일수에 따라 적립금을 자동 지급하는 '배송지연 자동보상제'와 반품 신청 후 반송장 확인 시 바로 환불 처리하는 '바로환불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배송지연 자동보상제는 피치 못할 내부 상황에 의해 배송이 지연될 경우 기준보다 늦어지는 일수에 따라 매일 1000원씩 누적 보상해 주는 제도다. 별도 신청없이도 자동으로 적립되며, 최대 지급금액의 제한도 없다.

바로환불제는 고객이 환불을 요청한 뒤 택배사의 반송장만 확인되면 즉시 환불 처리해준다.

CJ '햇반 슈퍼곡물밥' 한달만에 매출 10억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은 지난달 출시한 '햇반 슈퍼곡물밥'이 한 달 만에 생산량 100만개를 돌파하며 매출 10억원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할인점에서 판매되던 기존 햇반 잡곡밥 평균 매출의 80%를 차지한다.

회사측은 '햇반 슈퍼곡물밥'의 이같은 인기에 대해 식품 시장에 불고 있는 슈퍼곡물 열풍과 즉석밥을 먹더라도 건강하게 먹고 싶어하는 소비자 심리를 적극 반영한 결과로 분석했다.

CJ제일제당은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이 방송이나 SNS 등을 통해 슈퍼곡물을 활용한 식단을 건강식으로 소개하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던 상황에서 가장 대표적인 슈퍼곡물인 렌틸콩과 퀴노아를 넣은 즉석밥을 출시했다.

단백질과 식이섬유, 철분·마그네슘 등 영양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렌틸콩과 퀴노아를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게 밥과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소비자의 니즈를 잘 공략했다는 평가다.

특히 새 제품은 강남, 송파·목동 등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큰 인기가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업계최초 출장 세일 등 부진한 실적 만회 총력

/롯데백화점 제공

콧대 높던 백화점이 자존심을 버리고 버렸다. 정기세일 기간에 파격 세일 행사도 모자라 출장 세일까지 진행하며 부진한 실적 만회에 나섰다.

롯데백화점은 10일부터 12일, 17일부터 19일 서울 컨벤션센터 세텍(SETEC) 제3전시관에서 초대형 쇼핑박람회를 연다. 블랙 쇼핑데이로 이름 붙여진 이 행사는 장기불황을 겪는 협력사들의 재고 소진을 돕는 게 목적이다. 무엇보다 콧대 높은 고급 백화점이 외부 전시장까지 빌려 대규모 세일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생활가전·식품·해외명품·잡화·골프 상품 관련 협력사 300여 곳이 참여하고 150억원 어치 상품이 초특가로 판매된다. 행사장인 세텍 제3전시관은 3300㎡(1000평)로 동상적인 쇼핑박람회 행사장의 3배 규모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과다한 재고로 힘들어하는 협력사들이 단기간에 재고를 대량 소진할 수 있도록 초대형 출장 판매라는 신개념의 행사"라면서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수준으로 살 수 있어 고객에게도 탁월한 쇼핑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10일부터 무역센터점, 목동점 등 주요 점포에서 상품군별 대형 행사를 진행한다. 최근 저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봄 시즌 상품의 원활한 재고 소진을 위해서라고 백화점 측은 설명했다.

목동점은 10일부터 12일까지 대행사장에서 LF 종합 대전을 연다. 마에스트로·닥스·인디오소 등 남성 브랜드뿐 아니라 질스튜어트·헤지스 등 여성 브랜드와 잡화까지 LF에서 운영중인 총 10여 개 브랜드의 봄 여름 의류를 최대 50% 할인하는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 무역센터점에선 10일부터 16일까지 총 60억원 규모의 프리미엄 골프 대전을 연다. 압구정본점은 10일부터 16일까지 해외 유명 패션브랜드의 이월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매출이 급한 백화점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할인 행사를 하지만 잦은 할인 판매는 고급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간의 매출에는 상승효과를 보겠지만 소비자의 가격 저항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hanna419@metroseoul.co.kr

패션기업, 유통으로 부업 전선

패션 사업과 시너지 기대

코오롱FnC 커먼그라운드 외관

패션 업계가 불황이 지속되자 부업으로 유통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새로운 복합 쇼핑몰을 내는 한편 기존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40년 간 패션 사업에 주력해온 코오롱인더스트리 FnC 부문은 10일 건대상권에 컨테이너 복합 쇼핑몰 '커먼그라운드'를 오픈한다.

커먼그라운드는 코오롱FnC에서 내놓은 첫 유통 브랜드로 신성장동력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이다. 기존 상업 시설에서 볼 수 없던 컨테이너형 쇼핑몰로 20대를 타깃으로 한다. 다양한 마켓이나 파티 등 문화적 콘텐츠를 활용해 차별화를 꾀한다.

오원선 전무는 "백화점, 아울렛, 면세점 등에 국한되어 있는 기존의 유통 비즈니스와는 차별화된 유통 플랫폼"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수익성 보다는 상생에 초점을 둬 매출 목표는 크게 잡지 않았다. 첫 해 목표는 250억원이며 3년차에 접어들었을 때는 300억원 매출 달성을 예상하고 있다. 자사 패션 브랜드도 입점시키지 않았다. 정해진 기간 동안만 운영하는 팝업 형식으로 2, 3 호점도 추가로 낼 예정이다.

중견 패션 기업 세정은 유통 브랜드 웰메이드를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4500억원을 올렸으며 매장 수는 390개다.

론칭 2년차에 접어든 웰메이드는 올해 대규모 매장 구성과 매장 내 입점 브랜드 다양화에 집중한다.

기존에는 남성복 인디안 매장을 웰메이드로 전환했기 때문에 중소형 규모의 매장이 많았다면 새로 오픈하는 매장은 대형 규모로 구성할 계획이다. 신규 여성 브랜드를 여름부터 추가해 포트폴리오도 강화한다. 세정 측은 5년 내에 웰메이드를 1조원대 브랜드로 키울 방침이다.

형지는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유통 총괄임원으로 신세계 출신의 한상대 사장을 선임했다. 한 사장은 한양유통, 마리오아울렛 등 유통 사업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복합쇼핑몰 바우하우스의 2호점인 부산점은 내년께 완공될 예정이다.

업계는 유통 사업이 기존 패션과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사 패션 브랜드의 판매 채널을 확보하는 동시에 고객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프리미엄 아울렛 등 유통 사업이 확두되며 "여러 브랜드가 입점해 쇼핑몰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 줄 수 있고 입점 된 자사 브랜드로의 고객 유입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노인 89% "연명치료 반대"

보사연, 노인 1만452명 조사 재산 자녀 균등분배 52%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서작성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설계하려는 노력은 드물었다.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식불명이나 살기 어려운데도 살리려고 의료행위를 하는 연명치료에 대해 65세 이상 노인 3.9%만이 찬성했다.

조사대상 88.9%에 이르는 대부분 노인은 성과 지역(도시·농촌), 연령, 배우자 유무, 가구형태(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교육수준, 취업상태, 가구소득 등 모든 특성에 관계없이 연명치료에 반대했다.

바람직한 재산처리 방식에 대해 노인 52.3%는 자녀에게 균등 배분하는 게 좋다고 응답했다. 15.2%는 자신(배우자 포함)을 위해 쓰는 게 좋다고 했다. 11.4%는 모든 자녀에게 주되 장남에게 더 많이 주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7.0%는 경제적 사정이 나쁜 자녀에게, 6.3%는 장남에게만, 3.3%는 효도한 자녀에게 주겠다고 했다.

반면 재산 전체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한 노인은 4.2%에 불과했다.

죽음을 대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묘지(27.1%), 수의(11.2%), 상조회 가입(6.7%) 등을 답했다. 유서작성(0.5%)이나 죽음준비 교육수강(0.6%) 등은 드물었다.

희망하는 본인의 장례 방법으로는 산골(散骨: 화장한 뼛가루를 강이나 바다 등에 뿌리는 장사법) 34.4%, 매장 22.9%, 화장(봉안) 자연장 9.6%,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11.3% 등이었다. 시신 기증을 생각해본 노인은 2.2%로 소수에 그쳤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의뢰로 2008년,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2014년 3~12월 65세 이상 전국 1만452명의 노인(남자 41.7%, 여자 58.3%)을 대상으로 면접 방식으로 노인 실태를 조사했다.

/하예진기자 [illegible]

MT문화도 웰빙 바람… '착한 먹거리' 뜬다

무알코올 맥주·견과 안주 등 건강·편의 갖춘 아이템 인기

과도한 음주에서 벗어나 건전한 MT 문화 조성을 위한 자정 노력이 확산되면서 MT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MT에서 즐겨먹는 삼겹살, 라면 등의 음식은 나트륨 열량과 나트륨 함량이 높은데다 술까지 더해지면 급성 위장 질환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주류를 대신할 무알코올 음료와 '건강'과 '간편성'을 두루 갖춘 먹거리가 MT 준비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이 하이트진로음료의 '하이트제로0.00'(사진)다. 이 제품은 맥주의 시원한 맛과 청량감을 그대로 담은 알코올 함유량 0%의 무알코올 음료다. 칼로리도 355㎖ 한 캔 당 60㎉로 일반 맥주나 단산 음료에 비해 낮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기름진 안주 대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견과류 등과 같은 간식은 위의 부담을 덜어준다.

돌 코리아는 최근 수입한지 18일 미만의 신선한 견과류와 건과일만을 엄선해 사용한 '후룻&넛츠 옐로우리벤'을 출시했다.

동원F&B의 간식용 김 '양반 스낵김'은 김 두 장 사이에 아몬드·통깨·매쌀 등을 넣고 바삭하게 구워 한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담았다.

해장용 아침 단골메뉴인 라면을 대신해 간편하게 만들어 먹어도 속이 든든한 밥 간편식도 인기다.

대상 청정원이 우리 쌀 100%로 만든 '밥이라서 좋다'는 라면처럼 간편하게 끓여먹는 국밥 제품이다. 끓는 물에 건조밥과 액상소스를 넣고 3분30초만 끓이면 완성된다.

파리바게뜨 '디저트 데이' 12일 '마카롱' 20% 할인

파리바게뜨는 매달 12일 진행하는 '디저트 데이' 품목으로 마카롱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오는 12일 '디저트 데이'를 맞아 프랑스 대표 디저트인 마카롱을 해피포인트를 이용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20% 현장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파리바게뜨는 아직 마카롱을 접하지 못했거나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쉽게 접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이번 '디저트 데이' 품목을 마카롱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고급 디저트에 대한 문턱을 낮춰 대중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라기자 bora[illegible]

갤러리아 '어린이 미술대회' 26일까지 환경사랑 주제 접수

갤러리아백화점(대표 한용득)은 '환경사랑 어린이 미술대회'를 연다. 수원점·센터시티·타임월드·진주점 등 5개 점에서 '환경사랑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를 주제로 작품을 10~26일 개별방문 접수한다.

참가 대상은 갤러리아 카드 소지 고객 자녀로서 유치부, 초등부 저학년, 초등부 고학년으로 나눠 지점별로 작품을 받아 5월 12일 오후 2시 갤러리아 홈페이지에서 입상자를 발표한다.

참가자에게 아동용 스페셜 소형 에코백과 63빌딩 할인 패키지 쿠폰, 정관장 에이키커 등을 선물로 준다.

갤러리아백화점 마케팅팀 홍정기 팀장은 "환경사랑 어린이 미술대회가 고객과 지역사회에 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G생건, 대학생 마케터 모집 SNS 콘텐츠 취재·홍보 활동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은 대학생 마케터 '온더바디 영 마케터즈' 1기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온더바디 영 마케터즈'는 브랜드와 제품 관련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SNS 콘텐츠 취재와 포스팅, 제품 활성화 아이디어 제안 등의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모집기간은 22일까지다.

LG생활건강 홈페이지에 방문해 지원서 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지원 과제와 함께 온더바디 공식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김수정기자 [illegible]

다이어트·변비 탈출 효과 만점

롯데칠성 '잘빠진 하루 우엉차'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가 국산 우엉을 원료로 한 차음료 '잘빠진 하루 우엉차'(사진)를 9일 출시했다.

다이어트, 변비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우엉을 원료로 한 이 제품은 경상남도 진주에서 재배한 국산 우엉을 사용했다. 회사측은 우엉 특유의 깊고 구수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은 0㎉ 차음료로, 섬유질이 풍부한 우엉의 장점 그대로 식이섬유 1000㎎을 함유했다.

패키지는 '100% 국산 볶은우엉 추출액' 문구를 넣어 국산 우엉 차임을 강조하고 무균 상태로 음료를 페트병에 채워 넣는 아셉틱(Aseptic) 기술을 적용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우엉차는 구수한 맛으로 질리지 않고 물처럼 편하게 마실 수 있어 새로운 음료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8주 복용… 갱년기 증상 80% 개선

동국제약 '훼라민Q' 120정 신포장 발매

잇몸약 인사돌로 잘 알려진 동국제약(대표 이영욱)이 일반의약품 여성 갱년기 치료제 훼라민큐(Q)(사진) 120정을 새롭게 발매했다.

복용자가 1일 2회, 2개월간 복용할 수 있도록 기존 100정을 120정으로 변경했다.

임상데이터에 따르면 훼라민큐를 8주간 복용 시 갱년기의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증상이 80% 이상 개선되는 것으로 연구됐다.

2014년 동국제약은 갱년기 증상이 심한 여성, 5년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여성, 골다공증 예방이 필요한 여성 등 훼라민큐 장기 복용이 필요한 소비자들을 위해 훼라민큐 300정을 발매해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훼라민큐는 처방전 없이 가까운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다.

"댓글 달고 '아침세트' 받으세요"

매일유업-켈로그 이벤트

매일유업이 켈로그와 함께 9일부터 15일까지 '아침 거르지 마세요' 이벤트를 진행한다.

매일유업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maeili)에서 실시되는 이번 이벤트는 댓글로 아침을 거르는 이유를 달고 함께 아침을 나누고 싶은 지인에게 태그를 달면 된다.

추첨을 통해 총 222명에게 매일우유의 저지방 우유 '저지방&고칼슘 2%'와 켈로그 스페셜K의 '고구마&바나나'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증정한다.

매일유업의 '저지방&고칼슘 2%'는 지방 함량을 일반우유의 1/2로 줄이고 칼슘 함량은 2배로 높인 제품이다.

'켈로그 스페셜K 고구마&바나나'는 다이어트에 필요한 단백질, 비타민·미네랄뿐만 아니라 오곡 푸레이크로 식이섬유까지 함유했다.

이대목동병원, 병원 R&D 플랫폼 구축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MOU

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권)은 지난 8일 병원 2층 소회의실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이원복)과 '병원 R&D 플랫폼 구축 및 지과용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국내외 유통 의료기기 전 품목에 대한 전기 기계적,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검사가 가능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국제공인시험기관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의료 기술과 의료기기 시험 시설을 공유해 의료인, 기업인, 전문인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과 의료기기 개발의 전단계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과 의료기기 R&D 플랫폼 구축에 협력하게 된다.

이대목동병원은 의료기기중점연구단(단장 이래나)과 이화융합의학연구원(원장 김윤근)을 중심으로 의료 기술을 이용한 제품 개발과 산업화에 힘쓰고 있다.

출시 2주년 '마구마구2015' 선물이 팡팡

넷마블, 19일까지 이벤트 다채

넷마블게임즈(대표 권영식)는 넷마블블루(대표 문성빈)가 개발하고 자사에서 서비스 중인 모바일 야구 게임 '마구마구2015 for Kakao'의 출시 2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아이템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오는 18일까지 접속만해도 일리트카드, 일리트 구단 카드 등을 포함한 푸짐한 아이템을 바로 지급하는 것은 물론 카드조합을 무한점 할 수 있는 핫타임 조합 이벤트, 마스터카드 재료를 얻을 수 있는 게릴라 이벤트 등 총 7종의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 2주년 이벤트 기간 동안 게임 내 미션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많을수록 이벤트 종료 후 고급 아이템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빅터트리기 이벤트를 통해 고급 아이템 획득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프로야구 시즌 개막 이벤트와 최대 엘리트 카드 5장을 획득할 수 있는 미션 이벤트 등도 동시 진행된다.

한지훈 넷마블 본부장은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함없이 보내주고 계신 이용자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올해도 색다른 즐거움을 전해드릴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수 모바일 야구게임으로 지속적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구마구2015'는 온라인 야구게임 '마구마구'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 기존 온라인 버전과 달리 HD급의 그래픽에 싱글시즌, 페넌트대전, 1:1대전, 홈런경쟁 등 총 4가지 모드로 모바일 야구게임의 모든 재미를 담아내 대한민국 대표 캐주얼 모바일 야구 게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한편 '마구마구2015'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공식 카페(http://cafe.naver.com/magma2013)와 넷마블 모바일 홈페이지(http://mobile.netmarble.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현종기자 sh@metroseoul.co.kr

세계 장애학생 e스포츠로 뭉친다

넷마블게임즈(대표 권영식)는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주최하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제 11회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예선전 참가자를 오는 5월 1일부터 선발한다고 9일 밝혔다.

넷마블이 2009년부터 7년째 개최하고 있는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는 게임의 우수한 가능성을 활용한 장애학생의 정보화 능력 신장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목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올해는 최초로 한국, 일본, 대만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류전 형태의 세계 대회를 동시 개최한다.

본선 경기는 학생, 학부모,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개최된다.

장애 유형별로 총 8종목에 걸쳐 경기가 진행되며 특수학교의 경우 정신 지체장애 부문 'XBOX360 키넥트 스포츠 육상', 시각장애 부문 '오딘로', 청각장애 부문 '프리스타일2', 지체장애 부문 '마구마구'가 진행된다.

통합부문 발달장애 부문은 일반학생동반 온라인 게임 '마구마구' 및 부모동반 모바일 게임 '다함께 붕붕붕 for Kakao'에 더해 넷마블 대표 모바일게임 '모두의마블 for Kakao' 및 '탕야'가 신규 종목으로 추가돼 보다 고도화된 전략성과 단합된 팀워크를 겨룬다.

통합부문 4종목(탕야, 마구마구, 다함께 붕붕붕 for Kakao, 모두의 마블 for Kakao)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역별 시도교육청 주관 아래 예선대회를 통해 본선 참가자를 선발한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장애학생들이 게임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 게임의 순기능을 알리기 위해 시작한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에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송현종기자

제10회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예·뻐·졌·다!
여격투가 도트 개편 업데이트!
2015.04.09 UPDATE

더 예뻐지고 더 날씬해졌다

던전앤파이터 '여격투가' 도트 개편

넥슨은 네오플이 개발하고 자사가 서비스하는 온라인 액션게임 '던전앤파이터'에 '여격투가'의 도트를 개편했다고 9일 밝혔다.

유저들은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여격투가의 더욱 여성스럽고 슬림해진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또 스트라이커, 그래플러, 스트리트파이터 등 전직 스킬 성능 향상으로 외형뿐만 아니라 능력 면에서도 새로워진 여격투가를 즐길 수 있다.

넥슨은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해 비민관리 업체 365mc와 제휴를 맺고 5월 7일까지 'Let's 美人 요요방지 4주 프로그램' 이벤트를 벌인다. 20레벨 이상의 여격투가 캐릭터로 적정 레벨 던전을 50회 완료하면 힘과 체력, 이동 속도를 상승시켜주는 무제한 크리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또 모든 여격투가 캐릭터에게 공격과 이동 속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제공한다. 20레벨 이상 여격투가 캐릭터에게는 '+7 강화 3 재련' 유니크 무기를 무상으로 대여해 준다.

업데이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던전앤파이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문경기자 hm0108@

넥슨, 내달 1일 '메이플스토리2' 파이널 테스트

넥슨이 신작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2'의 정식오픈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에 들어간다.

넥슨은 5월 1일부터 10일까지 게임 유저를 대상으로 파이널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파이널 테스트에서는 그동안 진행된 테스트 내용을 바탕으로 개선된 최적화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신규 직업 3종을 포함한 전체 직업 8종을 모두 공개한다.

테스터 모집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테스터 당첨자는 28일 공개된다. 지난 알파 테스트 및 비공개 시범 테스트에 참가한 유저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넥슨은 메이플스토리2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직업, 스킬, 몬스터와 다양한 시스템 개선 사항 등을 소개하며 유저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테스트에 새롭게 도입되는 주요 콘텐츠들도 순차적으로 공개해나갈 예정이다.

메이플스토리2 파이널 테스트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메이플스토리2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문경기자

metro entertainment

"가수로 인정받는 게 내 숙제"

두 번째 싱글 '미스매치' 발표

개그우먼 **신보라**

개그우먼 신보라(28)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긴 생머리를 어깨 뒤로 싹둑 자른 채 나타났다. 심경의 변화가 있던 것일까? 그가 머리를 자른 이유는 새 앨범 '미스매치(Feat. Vasco)'를 위해서였다. 2013년 발라드 곡 '용공'으로 가수로서 첫 걸음을 내디뎠던 그가 이번에 부른 '미스매치'는 힙합 리듬을 접목한 곡이다. 짧아진 머리만큼이나 그에게 낯선 장르다.

◆ 노래 잘하던 개그우먼

그의 목소리는 정직하다. 화려한 기교 없이 고음을 힘써 쭉 뻗어가는 목소리는 시원하기까지 하다. 그가 두 번째 앨범을 발표한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팬들은 그가 가창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발라드 곡을 들고 나오리라 예상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발라드 음반을 낼 거라 생각하시더라고요. '용공' 때는 개콘 활동도 했을 때라 음원만 내고 다른 활동은 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음악 방송에도 출연할 계획이에요. 안 우라고 하기엔 좀 쑥스럽지만 춤도 조금 추려고요."

'미스매치'는 래퍼 바스코가 피처링에 참여했으며 힙합듀오 배치기의 '눈물샤워'를 만든 라디미스트가 작곡했다. 마이너 코드 진행에 스트링과 힙합 비트를 더한 감각적인 곡으로 오래된 인연에 이별을 결심하고 서로에게 독한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다.

'컴백 대란'으로 불리는 이달 가요계에 '미스매치'가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둘 지 기대된다는 말에 그는 손을 가로저었다.

"제가 '4월 대란'을 견제하면서 준비하는 것도 웃기잖아요(웃음). 만약 정말 신경 썼다면 발매일을 바꿨겠죠? 요즘 힙합이 대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도한 건 절대 아녜요. 라디미스트 오빠가 '미스매치' 후렴구만 작업해 둔 걸 듣고 마음에 들어서 불러보겠다고 했는데 완성된 걸 보니 힙합 장르더라고요."

◆ 어엿한 진짜 가수

그는 2010년 KBS 25기 공채 개그맨으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개그콘서트'에서 그가 처음 맡았던 코너는 가창력을 뽐낼 수 있는 '슈퍼스타KBS'였다. 이후 '용감한 녀석들' 등을 거치며 노래 잘 하는 개그우먼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그가 앨범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발라드 아닌 힙합 장르…래퍼 바스코 피처링
개그·노래로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고 싶어

"원래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못생겨서 개그맨이 된 후에 노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웃음). 전혀 아녜요. 그런 시선 때문에 개그우먼으로 제대로 인정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제 개그를 좋아해주셨고 사랑도 받았죠. 제가 개그를 좋아하는 사람이란 걸 아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서운하지 않아요. 개그우먼이 되고 나서 제 목소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단 걸 알았고, 그렇게 용기를 내게 된 거죠. 재능이 있어도 환경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 다행히도 좋은 회사를 만나 이렇게 노래할 수 있게 됐어요. 노래는 앞으로도 꾸준히 하고 싶은 일이죠."

그는 지난 설 연휴 MBC 파일럿 방송 '복면가왕'에 출연해 뛰어난 가창력으로 다시 한 번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지난해엔 용감한 녀석들 활동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용기백배 콘서트'도 진행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재능을 모두와 나누면서 기쁨을 느낀다.

"'용기백배 콘서트'는 2012년부터 지난까지 했어요. 재능기부 형식으로 이뤄지는 공연인데 좋은 취지의 콘서트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 가수들이 나오니까 관객들도 많이 찾아주셨죠. 용감한 녀석들로 콘서트하면 누가 오겠어요. 박성광 씨를 누가 들으러 와요(웃음)."

이날 신보라는 음악에 대해 진지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틈틈이 농담을 던지며 개그우먼다운 모습을 잃지 않았다.

"이제 노래하는 제 모습을 낯설어 하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다행이죠. 하지만 가수 신보라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까지 가수로서 인정받는 게 제 숙제죠."

/김지민기자 [illegible]

metroseoul.co.kr

star bag

이달 첫 단독 日 팬미팅

배우 **이현우**가 오는 18일 일본 도쿄에서 첫 단독 팬미팅을 연다. 영화 '기술자들'(2014), '은밀하게 위대하게'(2013)를 통해 차세대 한류 스타로 발돋움했다. 특히 일본 팬과는 드라마 '이름다운 그대에게' 홍보차 방문한 이후 2년 만에 만남이다. 이날 팬클럽 창단식과 관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할 예정이다.

YG 선후배에서 연인으로

'YG 선후배' **산다라박**과 **강승윤**이 웹드라마 '우리 헤어졌어요'에서 헤어진 연인을 연기한다. 동명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우리 헤어졌어요'는 캠퍼스 커플로 오랜 시간 함께해 온 두 남녀가 헤어진 뒤에도 어쩔 수 없이 한 집에서 살게 되는 미묘한 동거 이야기를 그렸다. 6월 초 방영 예정.

한국 팬들 또 만나요

지난 주말 내한공연을 개최한 가수 **노엘 갤러거**가 오는 7월 '안산 M밸리록페스티벌'에 출연한다. 갤러거는 2009년 지산밸리록페스티벌에 이어 두 번째로 밸리록에 참가하게 됐다. 올해 밸리록에는 갤러거를 비롯해 푸 파이터스, 오케이 고 등 80여개 팀이 출연한다.

안성기의 손녀로 변신

배우 **한예리**가 장률 감독의 신작 '필름시대의 사랑'에서 안성기와 호흡을 맞췄다. 한예리는 극중 안성기의 손녀로 등장한다. 노년의 사랑과 시대를 다룬 작품으로 노인과 시공을 넘는 관계가 만들어내는 질감을 재현한 작품이다. 제 8회 서울노인영화제 개막작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끝나지 않는 숙제 '인생·존재의 의미'

화제의 책

'나'에 대한 고민은 사춘기에나 하는 거라고 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점점 각박해져 가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는 현대인에게 '나'에 대한 고민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와도 같다. 공허함과 불안함, 두려움은 나이와 상관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 불현듯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온다. 존재와 인생에 대한 고민은 이제 현대인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과제다.

그런 사회 현상을 반영한 듯 출판계에서는 자아와 인생의 의미를 살펴보는 책들이 대거 출간돼 주목된다.

◆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

정신의학과 뇌 과학 분야 전문가로 일본에서 주목 받고 있는 오카다 다카시가 쓴 책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김해용 옮김·동양북스)는 현대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회피형 인간'에 대해 다룬다.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한 사람들, 책임이나 속박이 싫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고 그들이 지금보다 더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담았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이 사람들이 원래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형성된 '회피형 애착 성향' 때문에 회피형 인간이 된 것이라고 진단한다. 미야자키 하야오, 헤르만 헤세, 조앤 롤링 등 유명인의 인생 스토리부터 저자가 직접 심리 상담을 진행한 일반인의 다양한 사례를 담아 현대인의 삶을 어렵지 않고 흥미롭게 풀어냈다.

◆ 자신으로 존재하는 용기

프랑스의 사회심리학자이자 작가인 자크 살로메가 지은 '자신으로 존재하는 용기'(이세진 옮김·마냐)와 철학자 이동용이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을 재해석한 '지극히 인간적인 삶에 대하여'(도서출판 동녘)는 보다 보편적인 시각으로 인생의 의미에 접근한다.

'자신으로 존재하는 용기'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아의 존재를 찾아갈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자크 살로메는 저서를 통해 "자아실현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은 단순한 내적 성취가 아닌 '나와 타자의 창조적이고 살아 숨 쉬는 관계망'으로 엮여 고립된 일상의 정점으로 아로새겨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힌다. 책은 인간관계의 심리를 연구해온 저자가 오랜 연구 끝에 정리한 관계 소통의 기본 원칙을 통해 보다 건강한 자아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지극히 인간적인 삶에 대하여

'지극히 인간적인 삶에 대하여'는 "삶은 고통"이라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에 대한 일종의 해설서다. 이동용은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염세주의 철학에는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담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다고 밝힌다. 저자는 "원자원적 쾌락과 사회화된 욕구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적인 삶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순간에 새로운 희망의 빛을 선사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독자에게 전하고 있다.

◆ 나답게 사는건 가능합니까

앞선 저들이 지나치게 철학적으로 느껴진다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한 사람의 시선으로 담은 '나'의 이야기를 추천한다. '나답게 사는 건 가능합니까'(임재훈·신진우 지음·담)는 팟캐스트 '청춘 컬럭' 서툰 삶 응원이'를 진행하고 있는 20년 지기인 두 저자의 뒤늦은 성장통을 담은 에세이다.

책은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는 것을 20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깨달은 두 사람이 나눈 진솔한 대화로 이뤄져 있다. 여기에는 정답도 오답도 없다. 대신 '나'라는 문제의 답을 찾아가려는 두 사람의 솔직함이 녹아 있다. 이들은 저서를 통해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행복은 '자급자족' 혹은 '가내수공업'이라는 정의와 함께 행복의 재료는 현재 안에만 있다고 강조한다. 궁극적으로는 나와 세상 사이에 존재하는 사자를 느끼면서도 그 사자를 줄여갈 수 있는 자신만의 적정 속도를 찾아가는 것이 곧 나답게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올봄 '핑크빛 연예계' 윤현민·전소민 합류

봄을 맞이한 연예계가 핑크빛으로 물들고 있다.

배우 윤현민(사진 왼쪽)과 전소민(오른쪽)은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 윤현민의 소속사 엔터테인먼트 아이엠은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지난해 지인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고 선후배 사이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 올해 초부터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9일 오전 밝혔다.

이어 "서로에 대해 이제 막 알아가고 있는 단계로 예쁜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윤현민과 전소민이 연인 관계로 약 4개월 째 만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두 사람은 지난 7일 영화 '약장수' 시사회 뒤풀이에 함께 참석하는 등 관계자들 사이에선 '공식커플'로 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류스타 이민호와 걸그룹 미쓰에이(Miss A) 수지도 지난달 23일 열애 사실을 인정해 화제를 모았다.

이민호 소속사 스타하우스는 두 사람이 만난 지 약 1개월 정도 됐으며 호감을 가지고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수지는 지난달 30일 미쓰에이 컴백 쇼케이스에서 "잘 만나고 있으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배려심 많고 따뜻한 사람이다. 그런 부분에 호감을 갖게 됐다. 미쓰에이도 이제 막 컴백했으니 바빠질 것 같다. 서로 응원하면서 잘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우 류수영과 박하선도 열애 소식을 전해 주목받았다. 류수영 소속사 윌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두 사람은 만난 지 약 5개월로 2013년 MBC 드라마 '투윅스'에서 커플로 등장한 것이 인연이 돼 연인으로 발전했다.

모델 장윤주는 다음달 29일 네 살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 소식을 알렸다. 두 사람은 지난해 가을에 만나 올해 1월부터 만나고 제 석 달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

/김지민기자 kjm@

김수현 '리얼'로 스크린 복귀

액션 느와르 도전

배우 김수현이 영화 '리얼'(감독 이정섭)로 2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다고 소속사 키이스트가 9일 밝혔다.

'리얼'은 화려한 도시 속 검은 세계의 의뢰를 언제나 말끔하게 처리하며 승승장구하던 해결사 장태영에게 한 르포 작가가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액션 느와르 스릴러 장르의 작품이다.

김수현에게는 2013년 700만 관객을 동원한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후 2년 만의 영화다. 그는 극중에서 성공의 욕망에 눈먼 무자비한 해결사이자 카지노 호텔을 건설해 도시를 제패하겠다는 야망을 가진 남자 장태영 역을 맡아 이전에 보여준 적 없었던 거칠고 선 굵은 연기를 선보인다.

김수현은 현재 KBS2 새 예능 드라마 '프로듀사'에서 신입 PD 역할을 맡아 안방 컴백도 앞두고 있다. 올해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며 활약을 펼칠 계획이다.

'리얼'은 '폭력의 도시' '목욕의 신' '로맨틱 아일랜드' '가면' '러강 로맨스' '사람을 놓치다' 등을 기획하고 각본을 썼던 이정섭 감독의 작품이다. 내년 하반기 개봉을 목표로 올해 10월 크랭크인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어벤져스2' 수현의 활약은?

미스터리한 인물 '닥터 조' 궁금증↑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할리우드 배우들과 함께 호흡을 맞춘 한국 배우 수현의 캐릭터를 담은 스틸이 공개됐다.

수현은 '어벤져스2'에서 토니 스타크(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인 닥터 조 역을 맡았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이번에 공개된 스틸은 블랙 위도우(스칼렛 요한슨)와 함께 연구실 공간에 있는 닥터 조의 모습을 담고 있다. 한국인 과학자로 등장하는 닥터 조가 영화 속에서 어벤져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그리고 악의 세력 울트론으로부터 인류를 지켜내기 위해 어떤 실마리를 제공하게 될지 궁금증이 모아진다.

'어벤져스2'는 더욱 강력해진 어벤져스와 평화를 위해서는 인류가 사라져야 한다고 믿는 울트론의 전쟁을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다. 오는 23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오는 17일 오후 8시에는 조스 웨던 감독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크리스 에반스, 마크 러팔로, 수현이 함께 하는 내한 행사가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용병 농사에 울고 웃는 구단들

NC·삼성·KIA·롯데 합격점…KT·한화·SK 등 울상

프로야구 정규시즌이 아직 10경기도 치르지 않았지만 용병으로 웃고 우는 구단이 갈리고 있다.

NC 다이노스와 삼성 라이온즈, KIA 타이거즈, 롯데 자이언츠는 시즌 초반 용병 농사에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NC는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 지난해 함께 한 에릭 해커(2승·평균자책점 1.42)와 찰리 쉬렉(1승·평균자책점 2.61)은 평균자책점 부문에서 나란히 5위와 11위를 차지하고 있다. 두 외국인 투수의 변함없는 활약에다 손민한의 '회춘투'를 앞세워 개막 2연패 이후 파죽의 5연승을 질주하며 단독 2위로 올라섰다.

필립 험버 (KIA)

넥센은 지난해 20승 투수 앤디 밴헤켄(1승·평균자책점 3.09)의 건재를 확인했다. 밴헤켄과 짝을 이룬 라이언 피어밴드(1승 1패 평균자책점 5.56)는 지난 7일 두산전에서 데뷔전의 부진을 씻는 쾌투로 안도감을 줬다.

KIA와 롯데는 잘 뽑은 외국인 투수 2명 덕에 화색이 만연하다. '메이저리그 퍼펙트게임'이라는 화려한 경력으로 주목을 받은 필립 험버(1승·평균자책점 2.70)와 조쉬 스틴슨(1승 1패 평균자책점 3.18)은 시즌 초반 순조로운 행보를 보이며 달라진 KIA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지난 시즌을 마치고 크리스 옥스프링(KT)과 쉐인 유먼(한화 이글스)을 모두 떠나보내며 비난을 한몸에 받았던 롯데는 브룩스 레일리(1승·평균자책점 5.56)와 조쉬 린드블럼(1승 1패·평균자책점 2.[illegible])의 활약으로 안도하고 있다.

삼성은 류중일 감독이 4년간 지켜봤다는 알프레도 피가로(1패·평균자책점 2.08)와 타일러 클로이드(평균자책점 1.50)가 맹활약하며 장원삼-윤성환과 더불어 철벽 선발진을 구축 중이다.

반면 신생팀이어서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KT는 필 어윈(1패 평균자책점 9.00)과 앤디 시스코(2패 평균자책점 8.68)의 부진이 아쉽다. 불펜진이 취약해 어윈과 시스코가 긴 이닝을 소화해줘야 하지만 이들은 5이닝을 소화하기도 버겁다.

지난해 외국인 선수의 도움을 받지 못한 SK 와이번스는 에이스 트래비스 밴와트(2패·평균자책점 10.80)의 부진에 울상이다. SK는 밴와트로 다친 가슴을 새 식구 메릴 켈리(평균자책점 1.35)의 호투로 달래고 있다.

두산은 유니에스키 마야(1승 1패 평균자책점 4.15)가 준수한 활약을 펼치는 가운데 에이스 더스틴 니퍼트의 복귀를 애타게 바라고 있다. LG는 헨리 소사(1승 1패 평균자책점 3.00)는 만족스럽지만 루카스 하렐의 제구력 교정이라는 숙제를 안았다.

한화는 4일 휴식 후 등판의 강행군을 군말 없이 소화하며 에이스 역할을 해주는 미치 탈보트(1승·평균자책점 2.35)의 희생이 고맙다.

/[illegible]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필 어윈 (KT)

손흥민 vs '마인츠 듀오' 11일 격돌

잉글랜드 기성용도 출격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 중인 '손세이셔널' 손흥민(레버쿠젠)과 '마인츠 듀오' 구자철·박주호(마인츠)가 맞대결을 펼친다.

구자철

레버쿠젠은 11일 오후 10시30분(한국시간) 독일 마인츠의 코파스 아레나에서 마인츠를 상대로 2014-2015 분데스리가 정규리그 28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한국 축구대표팀 동갑인 손흥민과 구자철, 박주호는 모두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

손흥민은 2월 볼프스부르크전에서 2골, 지난달 파더보른전에서 3골씩 몰아치기를 기록했다. 마인츠전에서 특유의 몰아치기식 골 사냥에 성공한다면 대선배 차범근 전 감독이 독일 분데스리가 역대 한국인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뛰어넘을 수 있다.

특히 9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열린 2014-2015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8강전에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해 대표팀 차출 등으로 누적된 피로를 풀게 됐다.

손흥민은 정규리그 10골을 비롯해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1골,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5골(플레이오프 2골·본선 3골) 등을 합쳐 시즌 16골을 기록하고 있다. 차범근 전 감독이 1985-1986시즌 기록한 역대 분데스리가 한국인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은 19골이다.

마인츠의 구자철과 박주호도 상승세다. 지난달 우즈베키스탄과의 A매치에서 헤딩골과 함께 부활을 선언한 구자철은 선발 출전한 4일 베르더 브레멘과의 원정 경기에선 득점에 실패했지만 후반 41분에 교체될 때까지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박주호도 선발 출전해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볐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기성용(스완지시티)은 11일 오후 8시 45분 에버턴과 32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이청용(크리스털 팰리스)은 이날 오후 11시 선덜랜드와 맞붙는다. /[illegible] 기자

손흥민

'프리메라리가 라이벌' 득점 경쟁 후끈

호날두 37골·메시 33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와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의 득점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호날두와 메시는 9일(한국시간) 열린 2014-2015 프리메라리가 30라운드에서도 나란히 득점 행진을 이어갔다.

호날두는 스페인 마드리드의 바예카스 경기장에서 열린 라요 바예카노와의 원정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는 원맨쇼를 펼치며 레알 마드리드의 2-0 완승을 이끌었다. 호날두는 전반 23분 헤딩으로 선제골을 뽑더니 5분 뒤에는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쐐기골도 도왔다.

29라운드 그라나다와의 경기에서 무려 5골을 폭발시키며 메시를 따돌리고 단숨에 정규리그 득점 랭킹 1위로 올라선 호날두는 이날 추가 득점으로 37골을 기록, 메시가 2011-2012시즌에 세운 한 시즌 최다골 기록(50골)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위)와 리오넬 메시(아래)

메시 역시 알메리아와의 홈경기에서 전반 33분 자신의 시즌 33호 골을 터트리며 바르셀로나의 4-0 완승에 한 몫을 보탰다. 메시 또한 몰아넣기에 능해 호날두와의 4골 격차는 언제든 역전될 수 있다.

'프리메라리가 라이벌' 호날두와 메시의 골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축구팬들은 즐거워지기만 하다. /[illegible] 기자

'특수강도' 신세계 직원 풀어준 경찰

'직무유기죄'로 처벌될 수 있어

경찰이 피해자와 일반시민에게 불잡힌 특수강도 또는 특수절도 현행범을 관내 대기업 직원으로 신분이 확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풀어줘 버렸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9일 법조계에 문의한 결과 이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에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난 8일 오전 서울 중구 남창동 지하철4호선 회현역 근처에서 최아무개 대리 등 신세계그룹 직원 2명이 메트로신문 배포도우미 최아무개(64)씨가 출근길 시민들에게 나눠주던 메트로신문을 강제로 빼앗고 또 나른 신세계 직원은 배포대에 놓여있던 신문지 40여부를 탈취해 도주했다. 신세계 이마트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에게 불리한 기사가 실렸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112 신고를 받고 잠시후 현장에 도착한 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태도는 이상했다.

핵심적 사건이 이마트 직원들의 신문탈취인데도 용의자들을 제지하고 붙잡는 과정에서 일어난 경미한 상호 폭행과 피해 부분만을 문제 삼았다.

애초 자신을 신문사 기자라고 사칭하던 용의자가 경찰관들이 도착한 뒤 신세계 이마트 직원 이라고 신분을 밝혔고, 그 직후 경찰은 파시로 돌아가라 며 그대로 돌어줬다. 경미한 상호폭행 사건이고

지난 8일 오전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근처 지하철 4호선 회현역 출구에서 남대문경찰서 경찰관들과 메트로신문 직원 등이 신세계 이마트 직원들의 '메트로신문 강탈'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당사자들이 이에 대해 처벌을 원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이유가 어찌됐든 이마트 직원들이 한세에 신문을 강제로 빼앗은 부분은 특수강도, 배포대에 있던 신문을 훔쳐서 달아난 것은 특수절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건해 사건처리를 했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마트 직원들의 행위가 메트로신문사와 배포도우미의 업무를 방해한 것도 법리상 자명하다는 지적이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관 출신 한 중견 변호사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않아도 현행범의 경우 경찰이 체포해 입건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종결처리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경찰관에게는 직무유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박아무개 메트로신문 판매부장과 배포도우미 최씨 등은 "신세계 직원들이 신문을 강제로 탈취했다"고 알렸지만, 경찰은 별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붙잡힌 이마트 직원의 신원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9일 오후 현재까지 입건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신세계 이마트 직원에 대한 처분을 원하면 고소장을 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수강도와 특수절도, 업무방해죄 등은 모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즉 범죄혐의가 있으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당연히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 법조계 인사들의 지적이다.

/유선준기자 sunzn@metroseoul.co.kr

중앙대 학생-교수협의회 공동 대토론회 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내 학생회관에서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가 주관한 '중앙대 미래를 위한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들은 학교 측이 지난달 일방적으로 발표한 학사 구조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위헌 vs 합헌 '성매매특별법' 첫 공개변론

여성단체 등 100여명 열띤 공방

"성매매자기 결정권 침해냐, 사회적 혼란이냐."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린 9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9명의 전체 재판관들과 위헌, 합헌 측 참고인, 일반 방청객 등 90여명 등이 몰려 격론을 펼쳤다.

위헌에 불씨를 댕긴 조항은 동법 제21조 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양측 모두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돼 왔다.

주요 쟁점은 ▲성적 자기 결정권 ▲생계형 성매매 ▲법의 실효성 등 3가지다. 이를 근거로 성매매 여성들은 해당 조항이 성적(性的) 자기 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은 사회적 문제로 이를 바라봐야 한다고 맞섰다.

제청 대리인으로 출석한 정관영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최초 변론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밀한 영역까지 형벌권을 기동하는 것은 형벌 최소권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며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음성적 성매매가 다양한 형태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해당 조항은 성매매 확산 및 비극 속에서 제정됐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 규제가 없어 비극적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판관들도 변론에 참여해 쟁점을 짚어냈다. 김창종 재판관은 "성매매가 경제 수단으로 반복될 때 건전한 사회의 성풍속을 침해할 수도 있다"며 "독일과 네덜란드가 성매매를 합법화한 후 시장 확대로 인한 인신매매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2012년쯤부터 성매매가 급감했다는 내용의 법무부 자료를 두고는 법 시행보다 단속의 깨이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재판관은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의 포주 예속화가 성매매특별법의 형사처벌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위헌 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은 "생계형 성매매 여성 대부분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리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가 어렵다"며 "특정 지역에 한해 성매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최현희 변호사는 "성구매자만 처벌하자는 것은 불평등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성매매 전체의 합법화 논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합헌에 손을 들었다.

한편 성매매 여성과 업주들의 모임인 한터전국연합회(대표 강현준) 소속 회원 10여 명은 이날 변론에 앞서 전국 성매매 여성 862명이 서명한 성매매특별법 폐지 탄원서를 낭독하고 헌재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달 말 대규모 미스코 시위를 예고했다. /변상근기자 sco@

잠적한 성완종 전 회장 북한산서 숨진 채 발견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연루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영장실질심사 당일인 9일 이른 잠적 후 7시간여 만에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성 전 회장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최초 접수된 시각은 이날 오전 8시6분쯤이다.

오전 7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성 전 회장 자택에 도착한 운전기사가 성 전 회장이 나오지 않자 집안으로 들어갔다가 유서를 발견하고 경찰에 처음 신고했다. 문안 차 자택을 찾은 성 전 회장 아들도 6분 뒤 청담파출소에 재차 신고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성 전 회장은 오전 5시11분쯤 검은색 패딩 점퍼와 바지 차림으로 자택에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후 자택에서 인근 호텔까지 걸어서 이동해 택시를 잡는 모습도 인근 CCTV에 포착됐다. 성 전 회장은 '어머니 묘소에 묻어 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족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한 결과 오전 8시40분쯤 종로구 평창동에서 위치가 확인됐다.

경찰은 일단 평창동 부근의 의경 2개 중대를 투입해 일대에 대한 수색을 시작했지만 성 전 회장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

휴대전화 위치추적 결과 성 전 회장은 오전 9시1분 평창파출소에서 서울예고 방향으로, 오전 9시43분 북악터널에서 정재봉 능선으로 이동한 흔적이 확인되는 등 평창동 일대에서 계속해서 신호가 잡혔다.

성 전 회장은 평소 북한산에 자주 등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인근 야산 골프장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 같다"는 평창파출소 인근 거주 주민의 신고가 들어왔지만 오인 신고로 드러나기도 했다.

시간이 흘러도 성 전 회장이 나타나지 않자 경찰은 수색인원을 점차 늘렸다. 오전 11시 기준으로 내근을 포함한 종로경찰서 전 직원과 경찰 14개 중대 등 1300여명과 인근 군부대 병력까지 동원해 성 전 회장을 찾았다.

오전 11시3분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 신호는 금강아파트에서 북한산 정토사 방향 쪽으로 이동했으나 행방은 계속 오리무중이었다.

경찰은 성 전 회장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전단을 만들어 수색을 계속하면서 헬기까지 띄워 평창동 일대를 뒤졌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은 결국 신고 접수 이후 약 7시간26분 만인 이날 오후 3시32분 나무에 목을 맨 시신으로 발견됐다.

과학수사대 증거채취팀이 발견한 성 전 회장의 마지막 위치는 북한산 형제봉 매표소에서 등산로를 따라 30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산속으로 30m를 더 들어간 곳이었다.

발견됐을 당시 성 전 회장의 모습은 위아래 모두 검은 옷차림으로, 집을 나설 당시 그대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1대는 시신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 나머지 1대는 주머니에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유선준기자

한잔의 부드러움에
봄을 깨어난다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HAPPY WATER
부드러운 소주